



吾方奋进

2

주제102
2013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좀 천천히 승업하게 (♩=76)

작사 최준경
작곡 김동철

mf F Gm G7 C

1. 백 두 에 날리던 붉은기폭에 마치 와 낫파뿔 아로새겼다 인

F D7 Gm C7 F *Vf*

민 의운명을 간직 한기발 혁명 의폭풍을 헤 쳐왔어 라 높

B^b Gm G7 C

이 날 려라 우 - 리 의 당 기 - 천

F D7 Gm G7 C7 F

만 심 장하 나 - 같 이 풍 처 나 간 - 다

2. 향도의 이 기발 따르는 길에
이 세상 못 넘을 령이 없어라
불구름 헤치고 탁원 세우며
인민들 세기의 영웅되었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백전백승 주체위업 떨쳐나간다

3. 새와 벌 빛나는 맑은 하늘에
이 기발 세대를 이어 날린다
목숨은 버려도 우리 영원히
주체의 당기를 놓지 않으리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령마루에 길이 빛나라

금수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3
ISSN 1727-9062

주체102(2013)년 2호(루계 제282호) 월간

차 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장군님	3
충정으로 불타오른 12월	6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	8
한평생 인민의 아들로 사신 분	9
장군님의 후대관	10
가요 《매혹과 흠모》를 놓고	11
길이 빛날 업적	12
인민이 드린 칭호	13
일 화	
장군님과 야전솜옷	14
화초계에서 최고지위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상월선생	16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라고 호소	18
고향소식	
오늘의 경성	20
조국의 품에 안겨	
보람의 길	22
야 화	
고기별새값	22
편 지	
조국에 꼭 한번 오십시오	24
국제김정일상 제정	25
대동강건재공장	26

평양향료공장	28
창전해맞이식당	30
양각도체육촌	32
대학생씨름촌	34
광명을 주는 사람들	36



표 지: 국가안전보위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
의 동상

사진: 조선중앙통신

뒤표지: 백두산

사진: 본사기자 홍 훈



경월대보름명절과 우리 생활	38
질어가는 민족력색채	40

수 기

그리움은 끝이 없다	41
그가 지닌 애국의 마음	42

인상기

장군님은 가지지 않으셨다	43
수령복을 누리는 민족	43
만 북 화	44

애국애족의 전통을 이어	44
------------------------	----

설명절	46
---------------	----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	46
---------------------------	----

교예극 《춘향전》	48
---------------------	----

고 국 방 분	50
-------------------	----

민족의 향기

설명절음식 떡국	52
--------------------	----

전쟁과 평화를 가르치는 기준	53
---------------------------	----

자루속의 송곳	55
-------------------	----

계선을 넘어서는 령도강탈작동	56
---------------------------	----

조선속담	10
----------------	----

유모아

《흥정이 되거든 전져리》	39
-------------------------	----

상 식

국제모국어의 날	14
--------------------	----

우리 나라에서 령서표기의 령사	34
----------------------------	----

뇌출혈후유증때 민간료법	37
------------------------	----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장군님

그리움속에 해가 뜨고 지는 조국땅에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세월의 눈비를 다 맞으시며 온갖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다가 너무도 일찌기 우리결을 떠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12월의 가슴아픈 그날을 당하고서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운 아버이를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지난 1년남짓한 기간은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신 나날이였고 그이의 사상과 위업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즐기치게 흐르고있음을 내외에 보여준 나날이였다.

장군님의 전생애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누리에 빛내이시고 겨레에게 휘황한 미래를 펼쳐주신 영원한 태양의 력사이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장군님께서 민족앞에 다지신 맹세는 세상만방에 조선을 빛내이시는것이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삶의 목표였고 보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의 행복을 지켜 선군령도의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전선길에 계시였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중엽

조국과 인민앞에는 참으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기화로 더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여러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식민지노예가 되느냐 하는 엄혹한 시기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선군길을 이어나가시였다.

다박솔초소와 판문점, 초도, 대덕산, 오성산, 철령...

그 나날에 쪽잠과 췌기밥, 야전리발, 삼복철강행군과 같은 일화들이 생겨났고 그 일화들은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를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어느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밤이 펴 깊어서야 저녁식사를 하게 되시였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인민생활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쓰시였는데 자신께서는 아직 인민들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하고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면 밤잠도 오지 않고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시던 장군님께서 문득 말씀을 멈추시였다. 그이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던 일꾼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께서 쪽잠에 드신것이였다.

하나 그것은 불과 몇분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무들, 미안하오, 온종일 다녔더니 너무 곤하여 잠깐 졸았소, 나는 이제 또 몇개의 공장들과 군부대들을 더 보기 위해 떠나야 하오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또다시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한생을 오로지 그렇게 이어오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력사에는 인민을 위해 일한 국가수반과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말, 월말의 휴식을 하였고 무더운 여름철이면 별장과 피서지를 찾았다.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우리 장군님처럼 폭우 쏟아지고 폭양이 내리쬐이는 무더운 여름철에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는 이야기는 없다.

전지도 아닌 평화시기에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잠으로 한밤을 지새우시고 췌기밥으로 끼니를 예우시며 전선길에서 날과 달을 보내시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전선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선군의 기치높이 전선길에 계시였기에 우리 조국은 반공화국적대세력의 끊임없는 제재와 압력,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

할수 있었고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되어 인민이 대대손손 자주적으로 살아갈수 있는 억년기틀을 마련할수 있었다.

장군님께서 한평생 야전복차림으로 찾고찾으신 조국방선초소들로부터 협동벌, 공장과 건설장, 상업봉사기지들과 인민들의 살림집마다에는 조국수호와 강성국가건설, 인민의 복리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로고의 자욱과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만난시련을 헤치시며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조국땅우에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룡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첨단을 돌파한 CNC공작기계, 주체화를 실현한 마그네샤크링카공업, 새로운 속도로 건설된 희천발전소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과 도처에 일떠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 희한한 사회주의선경 등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사변들과 기적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이의 열화같은 사랑과 무한한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생의 마지막날까지 그이께서는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시였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12월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찾아주신 장군님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훌륭한 명곡들을 더 많이 들려주게

된 기쁨이 그리도 크시여 자신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광복지구상업중심에 들리시여서는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은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이의 마지막모습으로 될줄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우리 인민이였다.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겹쌓인 파로로 침습한 무거운 병상태로 하여 휴식이 아니라 치료를 받으셔야 할 몸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될 그날을 앞당기시려고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다가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자유민보》는 장군님의 인민적풍모에 대해 쓴 글에서 장군님을 만나뵈운 수많은 국가수반들과 정치인, 기자들이 그이를 칭송하고있다고 하면서 《특히 로씨야의 블리쑤스끼는 저서 <동방특급렬차>의 마지막장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오직 자국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사색과 정열을 다 바치는 지도자>

라고 평했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의 자주와 존엄, 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그이께서는 태양의 모습으로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업적, 숭고한 덕망으로 영생하시며 군인들과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대가정의 아버지로 영생하신다.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과 채취, 숨결과 넋이 조국강산에 그대로 어려있어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속에 그이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 충정의 맹세와 실천으로 날과 날을 보내고있다.

조국과 인민, 겨레를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고귀한 생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바로 그러한 절세위인의 영생을 현실에서 체험하고있다. 장군님의 서거 1돐 추모행사는 장군님께서 가신것이 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인생의 시작에서 끝까지 자신을 위한것이란 단 하나도 남겨둬없이 깡그리 바치신 **김정일**장군님,

정녕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온넋을 불태우신 위대한 아버지의 한평생이였다.

본사기자



2. 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 (2011. 1)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돐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충정으로 불타오른 12월

지난해 12월 조국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1돐 추모행사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가운데 12월 12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하늘로 올랐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전과정을 관찰하시였으며 서해위성발사장을 찾으시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평양에 올라와 자신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대한 충정의 보고를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14일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광명성-3》호 2호기 위성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평양시군민경축대회가 진행되었다.

김일성조선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한 역사적사변을 안아오게 하신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

움과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한 중앙추모대회와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조직 대표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주조 외교대표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추모대회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지난 1년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한 나날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에 이끌려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는 변함없이 흐르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훌륭하게 꾸러진 금수산태양궁전에는 대원수님들을 모신 영생홀들과 훈장보존실 등이 정중히 꾸러져있으며 사진문헌들과 생전에 리용하신 렬차와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이 모셔져있다.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개관식에서 보고자는 금수산태양궁전이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세출의 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 태양의 성지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추게 되었다고 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새롭게 훌륭히 꾸리는 성업에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대원수님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마음이 뜨겁게 깃들어있으며 해외동포들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지성이 어려있다고 하였다.

개관식에 이어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불멸의 태양기높이 백두산총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 조선인민군 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12월 17일 정각 12시, 전국에 일제히 교동이 울려왔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3분간 목상하였다.

이밖에도 영화상영회와 미술전

람회, 회고음악회가 진행되었으며 우표들이 발행되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여러 단위들에 모셔졌다.

각 도, 시(구역), 군들에서도 추모대회와 추모회, 회고모임들이 있었다.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은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추모행사들은 국내에서뿐만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 해외동포조직들에서도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진행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

오늘 조국에서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쏘아올렸다는 감격적인 소식에 접한 이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낮 12시에 중대보도가 있다가 TV를 켜더니 《광명성-3》호 2호기발사가 성공하였다는 소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도 기뻐 저도모르게 《만세!》를 불렀다. 얼마나 가슴이 후련한 기쁜 소식인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소원을 드디어 풀어 드렸다는 기쁨과 함께 장군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였을까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나왔다. 장군님이 그리웠다. 그러느라니 1998년 8월 조국에서

《광명성-1》호를 발사하였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막 달려갔다. 그리고 나의 기쁜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위대한 장군님께 꼭 전해달라고 대사동지에게 부탁하였었다.

그때로부터 10여년이라는 길지 않은 나날에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제작보유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었다.

참으로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온 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하는 장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쳐 오늘의

승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린다.

재로씨야 정일심 (2012. 12 평양에서)



한평생 인민의 아들로 사신 분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간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인민의 아버지 김정일장군님이시다.

인류력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보면 우리 장군님처럼 전생애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바치시여 인민들로부터 우리 장군님, 우리 아버지라고 뜨겁게 불리운 그런 인민의 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언제인가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자신을 《우리 장군님》이라고 부르는데 자신께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느끼게 된다, 나를 령도자로서만이 아니라 한식솔로 여기면서 허물없이 따르는 소박하고 순결한 인민의 진정에서 인민의 아들이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름을 가지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우리 장군님》이라는 호칭을 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최고표창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 이런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할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언제나 진실하고 변함없는 인민을 위해서는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간직하신 사명감이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였고 삶의 전부였으며 자신은 그 인민의 아들이였다. 정녕 머나먼 북변의 두메산촌으로부터 외진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찾아 기쁜 일이 생겨도 가시

고 피로운 일 있어도 가시였으며 삼복철의 무더위와 대소한의 추위도 무릅쓰고 가신 장군님의 걸음은 끝이 없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도에 건설된 닭공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고난의 행군시기 어려운 난국을 앞장에서 뚫고나간 이곳도의 인민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는 닭공장은 그야말로 높은 수준에서 건설되였다.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공장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는 큰 닭들과 쏟아져나오는 누런 닭알들을 기쁨속에 보시며 고기와 알을 공장 로동자들과 일반주민들, 탁아소와 유치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고기와 알을 받아안은 인민들의 반영이 지금 대단하다고 하시며 좋아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신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 모든 헌신은 뒤에 두시고 인민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신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그이께서는 중병에 계시면서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고 인민들에게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해주기 위한 대책까지 하나하나 세워주시였다.

그이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한식솔이 되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시였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치시였기에 인민들은 그이를 아버지로,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끝없이 따랐으며 대국상의 나날에 그렇게도 많은 눈물을 흘리였고 그렇게도 애타게 장군님을 목놓아 부르고 불렀던것이다.

자신께서는 한 나라의 령도자이기 전에 수령님의 전사이며 인민의 아들이다, 수령님의 전사로서, 인민의 아들로서 자신께서 할 일은 대단히 많다고, 그러니 나라와 민족,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자신께서 어떻게 편안히 말편잠을 자고 휴식을 할수 있겠는가 하고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오늘도 인민은 잊지 못하고있다.

오로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 사명감으로 온몸을 불태우시며 한평생을 인민의 아들로 사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사랑과 정으로 고난과 시련을 헤치시며 조국땅우에 인민의 무릉도원을 가꾸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아들의 한생을 더듬어보며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오늘도 하늘가에 울려 퍼지고있다.

선경의 새집 들려도

인민들 좋아하는가

사랑의 공원 찾아도

인민들 기뻐하는가

그 어데 가지어서도

그 누구 만나시여도

장군님의 첫 물으심은

언제나 인민이여라

장군님의 후대관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후대관에 기초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후대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헌신분투하신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관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에 집약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그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숭고한 후대관이다.

언제인가 아버지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해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

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이 인생관속에는 승리에 대한 낙관과 휘황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짝 들어차있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며 자기 당대의 락을 바라는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다는것,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한몸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것이 그이의 인생관속에 맥박치고있는 기본정신이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후대들은 우리 혁명의 계승자, 미래의 역군이라고 하시며 나라의 귀중한 기둥감들인 후대들을 아끼고 돌보는데서 최대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였으며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뿐만아니라 누구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의 정신을 지니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의 한마음을 남김없이 바쳐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후대들을 위해,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를 살아도 불같이 사시였으며 한가지 일을 해도 10년, 100년을 내다보며 전망성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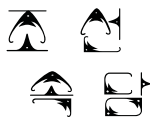
해오시였다. 조국의 앞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바칠 각오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데 혁명가들의 고귀한 정신세계가 있으며 참된 인생의 보람과 가치가 있다는 숭고한 념원을 지니시였기에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번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시고 지키고 빛내여오신 내 나라, 내 조국의 모든것은 그대로 조국의 자랑이고 긍지이며 존엄이다. 자위적핵억제력과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솟아오른 기념비적창조물들은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 한생을 바쳐 미래를 가꾸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산물이다.

인민의 행복과 번영할 미래를 위하여 조국의 산과 대지에 순결한 량심을 묻으시며 남모르게 바쳐오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은 세월이 흐르고흘러도 조국의 룡성번영과 더불어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영실

—개미새끼 해(도) 열썬 못한다
그 무엇도 나들거나 열썬거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주로 무엇을 지키는 일이 철저함을 이르는 말.
—방망이가 가뽀우면 주름이 잡힌다
다듬이질에서 방망이질을 약하게 하면 주름을 퍼지 못한다는 뜻으로 무슨 일이나 철저하지 못하면 결함이 생긴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철저성,
치밀성)

—열번 짚하고 한번 실수를 맡라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한번 실수를 하면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언제나 실수가 없도록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산진 거부기요 돌진 자라라
등이 납작하여 넘어질 위험이 없는 거부기와 자라가 산을 지고 돌을 지었다는 뜻으로 의지하고있는 힘이나 조건이 든든함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산진 거부, 돌진 가재라

가요 《매혹과 흠모》를 놓고

— 만수대에술단 인민배우 허광수와 본사기자의 대답 —

기자: 지금 조국인민들이 절절하게 부르는 노래가운데는 가요 《매혹과 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허광수: 3년전에 창작(작사 윤두근, 작곡 안정호)된 이 가요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매혹과 흠모의 감정 그리고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며 높이 모시려는 신념과 의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기자: 흔히 노래는 마음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요는 령도자와 인민, 전사와의 관계속에 력사적으로 축적되고 체험된 사상감정을 시적형상으로 일반화한것으로 하여 그토록 많은 사람들속에서 불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허광수: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만 놓고보아도 이 노래를 무심히 대할수가 없습니다.

친근한 영상 비오면
마음은 정에 쏠리고
영명한 말씀 들으면
온넛은 뜻에 끌리네
...

한구절 부르면 저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시여 전문예술단체에서 꽃피우도록 해주신 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오고 또 한구절 부르면 저를 통소리를 내는 류별난 가수라고 불려주시며 저의 독창회도 마련해주신 그이의 음성이 귀전에 쟁쟁해 목이 짝 메여옵니다. 어제날의 평범한 군인이었던 제가 온 나라가 아는 인민배우로, 국제콩쿨수상자로 자라나게 된것은 장군님의 손길은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 하나만이 아닌 조국의 그 어느 일터에나, 그 누구의 가정이나 다 어 려있습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1절가사에도 있는것처럼 그이의 정에 마음이 쏠리고 그이의 뜻에 온넛이 끌리어 그이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노래하는것입니다.

기자: 이러한 사상감정은 《베푸는 사랑 고마워 따르며 운명 말기고 이끄는 령도 위대해 받들어 한몸 바치네》라고 한 노래 2절부분에서 보다 승화되어 폭넓게 일반화되고있다고 봅니다.

허광수: 그렇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평시에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 하는것이 자신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은 그이의 사랑의 세계, 령도의 위대함을 자신들의 생활속에서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나라가 시련을 겪었던 1990년대만 보아도 그때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조국을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빛내이신 그이를 우러르며 열렬한 흠모심을 터쳤습니다.

그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매혹은 흠모를 낳는 마를줄 모르는 샘물 흠모는 매혹이 터친 꺼질줄 모르는 불길》이라고 한 노래 3절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습니다.

기자: 우리 인민이 피눈물속에 맞이했던 대국상의 나날은

장군님에 대한 매혹과 흠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허광수: 체험이 클수록 감동의 진폭이 큰 법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서거하신후 10여일 동안에만도 무려 2억 6 000여명의 군인들과 인민들이 조의를 표시하였습니다.

지금도 그이와 영결하던 두해 전 12월 28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눈내리는 수도의 100여리 연도에 수백만의 남녀로소가 달려나와 《장군님! 이대로는 못가십니다!》라고 통곡하던 그 모



습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사무치는 정과 정의 분출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그리도 절절히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이께서 서거하신후 불과 1년동안에 나라의 도처에 그이의 동상과 모자이크로 형상한 태양상들을 모시고 영생탑들이 건립된 사실만 놓고보아도 그이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심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허광수: 인민의 마음이 그대로 가사가 되고 선율이 된 가요 《매혹과 흠모》는 앞으로도 길이 울리며갈것입니다.

기자: 좋은 말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길이 빛날 업적



90여년동안 흘러간 나의 생에서 지난해는 참으로 잊을수 없는 해였다.

나는 것처럼 뵈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그것도 네번씩이나 사진을 찍었으며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주석단에 앉는 영광을 지니였었다.

지금도 나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여 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던 날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사진을 찍으니 모두 기뻐하고있습니다. 부디 험한 길을 걷지 마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라고 말씀올리는 나의 인사를 환히 웃으시며 다 받아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던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잊을수 없다.

해빛과도 같은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친근하신 원수님은 꼭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시였고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주체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넘쳐났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

시여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은 굳건히 이어지고 우리 조국은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가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념원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 조국땅에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을 통해서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잘 알 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인민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인민을 일떠세우신 그이이시였다. 원수님께서 장군님께서 드시었던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고 항공 및 반항공공군부대며 해군부대와 최전연부대들을 찾으시며 조국을 지켜주시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주시였다. 그 날에 나는 우리의 원수님은 문무를 다 겸비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계시며 우리 인민이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환히 알고계시는 참으로 다재다능한 실력가형의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절감하였다.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품모를 훌륭히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원수님께서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며 이에 대하여 세상사람들도 인정하고있으며 탄복하고있다.

생각해볼수록 나는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인 혁명위업의 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다.

장군님께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특출한 자질을 물려받으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성장하시였다.

10대에 벌써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였으며 20대부터는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였다. 또 30대, 40대에는 온 사회에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는 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시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시였다.

또 시련이 겹쌓였던 지난해 90년대부터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이 모든 업적 가운데서도 최대의 업적은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열어놓으신 것이다. 김일성조선의 강성변영의 년대를 끝없이 빛내이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나는 우리의 원수님께서 장군님께서 바라신대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것이며 사랑과 믿음으로 이 땅우에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시리라는것을 확신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항일혁명투사 김옥순

인민이 드린 칭호

지난해 2월 15일 아침,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무한한 환희와 걱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이 채택된 소식이 전해졌던것이다.

대원수칭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바라던 우리 인민의 소원이었던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쌓으신 업적은 하늘에 닿건만 언제 한번 자신의 공적에 대하여 생각조차 해보시지 않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조선인민군을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다.

전설적인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반미대전의 불구름속에서 성장하신 장군님께서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총대를 제일 중시하시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계승발전시키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창조하시고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였으며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훌륭한 군대로 키우시였다.

50여성상을 헤아리는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끊임없는 전선시찰과 현지도도로 언제나 군인대중속에 들어가시여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며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워주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병사들

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그리도 많은 고지에 오르시였고 그리도 많은 초소와 병실들에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시였다.

주체85(1996)년 2월 어느날 그이께서는 적들의 총포탄이 언제 날아들지 모를 어느 한 최전방초소에 오르시였다.

분계선철조망과 콩크리트장벽, 그뒤에 웅크리고있는 적측 현병초소들... 고지정점에서 적초소까지의 거리는 1 200m, 일군들의 속은 빠질빠질 탕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이 무반동포로 고지를 조준하고있다는데 일당백초병들이 초소를 튼튼히 지키고있기때문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찬바람이 몰아치는 고지에 오래동안 계시면서 초소를 일일이 돌아보시였으며 전방감시소근방에서 전투경계근무를 수행하고있는 전사들을 만나보시고 그들이 입은 솜옷의 두터이에 대해서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그날 밤늦게 숙소에 돌아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내가 최전연초소에까지 나갔다고 걱정한다는데 일없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위험하고 길이 험하다고 하여 안가서야 되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인민들을 위하여 험한 길을 걸으시였지만 언제 한번 길이 나쁘다고 안가신적이 없습니다. 나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렵니다.》

병사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신

그이께서 계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치렬한 정치군사적대결전이 벌어지던 가장 준엄한 시기에 한차례의 대전과 다름없는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고 우리 나라를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된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오늘 최첨단수준으로 강화발전된 자립적인 국방공업과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라신 조국의 모습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 인민의 행복을 대대손손 믿음직하게 보장할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해 장군님께서 바치신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불패의 선군령도로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무적필승의 백두산총대를 버려내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천출명장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민족의 영웅 김정일장군님께 조국과 인민은 그렇게도 드리고싶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드리였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불패의 군력과 군민대단결의 힘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그이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장군님과 야전솜옷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야전솜옷을 입고계시였다.

10여년세월 온 나라의 방방곡곡과 군대와 인민을 찾아 찬바람, 눈바람을 다 맞으시며 입으신 단벌솜옷이어서 색도 바래고 솜도 얇아졌었다.

그래서 언제인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릴 새 솜옷을 마련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병사들이 입은 솜옷이 얇다고, 천이 좀 더 들더라도 우리 병사들이 춥지 않게 해야 한다고 넘려하시면서 새 솜옷을 권하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다 잘 살 때 갈아입겠다고 하시며 끝끝내 사양하시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나온 시련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면서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은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역사를 잊을수가 없

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의 상징, 우리 장군님의 초인간적인 헌신의 역사를 천추만대에 새겨주는 말씀이였다.

오직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장군님이시기에 세월의 흐름속에 색이 바래고 엷어진 옷을 흙으로가 아니라 그 옷에 사랑과 정을 담아 뜨거운 추억을 안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0년대 중엽부터 야전솜옷차림으로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자주적근위병으로 사느냐, 아니면 또다시 노예로 살겠느냐 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준엄한 나날 숨죽은 공장들과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을 뒤에 두고 선군의 길에 결연히 오르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병사들을 찾고찾으시여 그들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다.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가신 초도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찾으신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그이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남아있다.

우리 장군님 특유의 불굴의 신념과 불타는 희망, 사랑과 열정의 무한한 세계가 담겨진 단벌솜옷,

그 옷은 오늘 혁명가는 생의 순간순간 자기 조국과 인민을 어떻게 지키고 사랑해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삶의 철리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국제모국어의 날

언어는 인류의 모든 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력한 수단이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는 약 6 000종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인구의 97%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중 4%밖에 안되며 학교와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중의 4분의 1도 못된다고 한다.

만일 효과적인 언어구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50% 이상의 언어가 사멸될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모국어를 보호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1952년 2월 21일 당시 파키스탄 동부(오늘의 방글라데슈)에서는 벵갈어를 국가 및 정부기관의 공식언어에 포함시킬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 시위자 5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1999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민족어의 사용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희생된 이 지역 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2월 21일을 국제모국어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기념하기로 하였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조치는 사람들이 세계 모든 민족의 모국어문화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언어와 문화의 다원적인 발전을 추동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화초계에서 최고지위

—김정일화가 이번 화초경쟁에서 높이 평가된 것은 이 꽃이 화초계에서 최고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세계원예박람회 국제화초경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한 말이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기간에 네델란드의 벤로에서 세계원예박람회가 진행되었다.

2012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로 명명된 이 박람회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규모의 원예박람회의 하나이다.

10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박람회는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품들여 준비한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전시하고 나라마다 경쟁의욕 또한 큰것으로 하여 많은 화초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지난해에 진행된 박람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40여개 나라들이 참가하였는데 갖가지 화초들이 전시되어 전시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그중에서도 이 박람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나라의 전시장은 세계 각국의 수많은 원예사들과 참관자들로 매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참관자들은 김정일화를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에서도 보고 또 꽃향기도 맡아보며 이렇게 크고 붉은 아름다운 꽃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김정일화 전시대앞을 떠날줄 몰랐다.

심지어 박람회 심사성원들자체도 김정일화에 반하여 서로마다 화분을 안고 사진을 찍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서유럽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 처음으로 자기의 선을 보인 김정일화는 완전히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이런속에 8월 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 박람회극장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2012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네델란드 화초리사회, 박람회 국제화초경쟁심사위원회 성원들, 세계 여러 나라의 200여명의 대표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당선된 화초들에 상과 상장이 수여되었는데 여기서 김정일화가 최우수평가를 받고 박람회 최고상인 1등상과 상장을 수여받았다.

박람회 국제화초경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라는것을 강조하면서 박람회 최고



상인 1등상과 상장을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속에 조선 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대표단에 수여하였다.

박람회에서 최고의 인기를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김정일화,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김정일화가 이번 박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은것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재는 김정일화는 크기와 색깔, 우아함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 어느 꽃에도 비길수 없는 명화중의 명화라고 하면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중국에서 진행된 2011서안세계원예박람회에서 최고상인 금상과 특별상들을 수여받는데 이어 2012네델란드 벤로세계원예박람회에서 김정일화가 또다시 최고상인 1등상을 받은것은 불멸의 꽃이 세계화초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김정일화가 최우수평가를 받은것은 꽃의 아름다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위인의 존함을 모시였기때문이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오늘 세계적인 명화중의 명화로 화초계에서 자기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상월 선생

(전호에서 계속)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 끄덕이다가 내곁에 다가와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리상이라면 나는 그 리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나는 그날 《홍루몽》을 빌려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월선생이 나에게 두번째로 빌려준 책은 장광자의 소설 《압록강가에서》와 《소년방랑자》였다.

나는 이 두 소설을 매우 흥미 있게 읽었다. 리맹한과 운고라는 조선의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압록강가에서》는 특히 나에게 잊을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후에는 고리끼의 《어머니》를 빌려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책과 문학을 통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상월선생은 내가 요구하는 책이면 무엇이든지 다 빌려주었다. 자기의 서가에 없는 책은 품을 내어 다른데 가서 구해다 주었다. 선생은 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나에게서 독후감을 꼭꼭 들어보곤 하였다.

우리는 고리끼의 작품 《원

쭈들》과 로신의 소설 《축복》을 두고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는 과정에 나와 상월선생은 자연히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였다. 우리의 담화에서 초점을 이룬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것이였다. 우리는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며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월선생은 문학이 인류를 지성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였다. 기계가 생산의 발전을 추동한다면 문학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켜준다고 선생은 늘 말하곤 하였다.

상월선생은 로신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선생은 로신의 문우였고 로신이 지도한 문학소조의 한 성원이였다. 선생이 소조활동을 할 때 쓴 단편소설 《도끼등》은 로신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소설은 봉건 유습을 반대하는 라산지방인민들의 투쟁을 담고있었다. 상월선생의 딸 상호원의 말에 의하면 로신은 《도끼등》을 읽고 예리성이 부족한것이 흠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였다고 한다.

상월선생은 초기의 창작에서 나타난 미숙성을 극복하고

1930년대에는 《예모》와 같이 사상에술적으로 세련된 작품을 창작하여 독자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장편소설은 그 당시 운남성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련재되였다. 1980년대에 중국인민문학출판사에서는 《예모》를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상월선생은 《예모》, 《도끼등》외에도 장편소설 《창》과 《개문제》를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선생은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작가적 사색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선생이 초기에 나를 문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상월선생한테서 《진독수선집》까지 빌려다보았다. 진독수는 중국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중국당의 실권을 장악하고있던 사람이였다.

상월선생은 처음에 그 책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칫하면 진독수의 우경적투항주의로선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수도 있다는것이였다. 선생은 자기가 베이징대학을 다니기 전에 진독수가 그 대학에서 문학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교직원, 학생들이 그가 자기네 대학출신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있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동안

안은 진독수를 숭배하였소. 그가 발간한 <신청년>잡지와 그의 초기론문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렸더랬지. 그런데 지금은 진독수에 대한 나의 견해에도 변화가 생기었소.》

상월선생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5. 4운동시기와 공산당 창당초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진독수의 인기가 여지없이 폭락된것은 그가 우경기회주의로선을 제창하였기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진독수의 기회주의적오유는 농민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었다. 쓰팔린은 벌써 1926년에 농민은 중국의 반제국주의전선에서 기본력량이며 로동계급의 가장 주요하고 믿음직한 동맹군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독수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그는 농민이 토호출신들과 충돌하는것을 두려워하면서 농민이 행정을 간섭하는것과 농민의 적극적인 자위를 반대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민투쟁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진독수의 오유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농촌혁명을 반대하면서 부르쥬아지가 혁명전선에서 떨어져나갈가봐 두려워한데 있다. 그의 투항주의적로선은 오히려 혁명에 대한 부르쥬아지들의 배신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이 진독수에 대한 상월선생의 견해였다.

선생이 정당하게 말한바와 같이 진독수의 글들에는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줄수 있는 투

항주의적요소들이 있었다.

나는 《진독수선집》을 읽은 다음 상월선생과 함께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한 장시간의 담화를 하였다. 그 담화과정에서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서 농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의 공통성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농민문제에 대한 레닌의 전략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것들이 이야기되었다.

나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인것처럼 농민을 천하지대군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말을 긍정하면서 농민을 경시하는것은 곧 농사를 경시하고 땅을 경시하는것으로 되기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리념을 가진 혁명을 하여도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은 진독수의 오유가 바로 이 리치를 망각한데 있다고 부언하였다.

나는 이런 담화까지 하고나서 상월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시에 상월선생도 내가 공청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상월선생은 192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다가 국민당 반동군벌에게 체포된 선생은 절강성 룽군감옥에서 1년 남짓하게 갇은 고초를 다 겪었다. 그 후 그는 조선인군의의 도움으로

보석출옥한후 사중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만주지방에 와서 초도남이란 사람의 소개를 받아 길림육문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다음부터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정치문제에 대한 론의를 자주 하였다. 그 당시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정치론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었다. 중국도 대혁명시기이고 조선도 대중운동이 앙양되고있던 시기여서 론쟁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문제점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조선청년들속에서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라 격렬한 론쟁을 불러일으키던 시기도 바로 이무렵이었다. 많은 청년학생들은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에게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상월선생은 그때 안중근의 소행은 물론 애국적이다, 하지만 투쟁방법은 모험주의적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그 대답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큰 군벌의 앞잡이 한두명을 처단하는 테로적방법으로는 승리할수 없으며 반드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전민을 쫓아낼때에만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주체102(2013)년 1월 1일 새해에 즈음하여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첫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속에 2012년을 맞이하였지만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기적을 창조한 조선로동당과 우리 인민의 승리를 총화하시고 올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과업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고 만수대언덕과 여러 단위에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데 대하여서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열병식을 통하여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시위한데 대하여서와 희천발전소와 단천항을 완공한것을 비롯하여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평양시에 창전거리와 룡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교육과 문화, 체육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과

업과 방도에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새해 2013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는 오직 주체의 한길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게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은 오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전면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주체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올해 모든 경제사업은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특히 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농업과 경공업은 여전히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다.

그이께서는 농사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고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며 경공업공장들에 대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또한 축산과 수산, 파수부문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더욱 풍족하게 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길을 걸으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써 마련해놓으신 현대적인 공장들과 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

열어나가자고 호소

이 있다.

우주를 정복한 위성과과학자들처럼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이 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나아가서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다음으로 우리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군사전략사상을 실현해 나갈수 있는 우리 식의 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에서 올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의 사상관점과 사업기풍, 일본새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국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초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요 유훈입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

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며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초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업무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온 민족이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나라의 분렬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입니다.

지나온 북남관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입니다. 남조선의 반동일세력은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것은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전제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인다 하여도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신년사에서 앞으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는데 대하여서도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신년사의 마지막부분에서 새해에 우리앞에는 더 밝고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있으며 우리 인민이 나아가는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치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었다.

오늘의 경성

동포들이 꿈에도 못 잊어하는 고향소식을 전하기 위해 취재길을 이어가는 우리는 평양—두만강행 급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렬차의 차창밖으로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저저마다 자기의 감정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그가운데서도 40대 중엽의 한 사람이 유표하였다.

《난 경성에서 사는데 우리 고향의 바다경치는 정말 멋이 있소. 염분진이나 집삼앞바다의 경치는 동해의 명승으로 이름난 금강산의 해금강이나 칠보산의 해철보의 경치에 결코 짝지지 않을거요.》라고 하며 그는 동해의 푸른 물에 한발을 잠그고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있는 관모봉과 더불어 경치가 좋기로 소문난 경성땅의 바다가경치에 대하여 손세, 몸세를 써가며 정열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느라니 언제인가 취재길에서 함경북도 경성이 고향이라던 미국 뉴욕에 살고있는 송근혁동포의 모습이 떠올라 우리는 그곳에 들러보기로 하였다.

경성역구내에서 우리는 렬차에서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던 그와 만났다. 경성애자공장 진료소

에서 일하고있다는 최옥은 매우 반가와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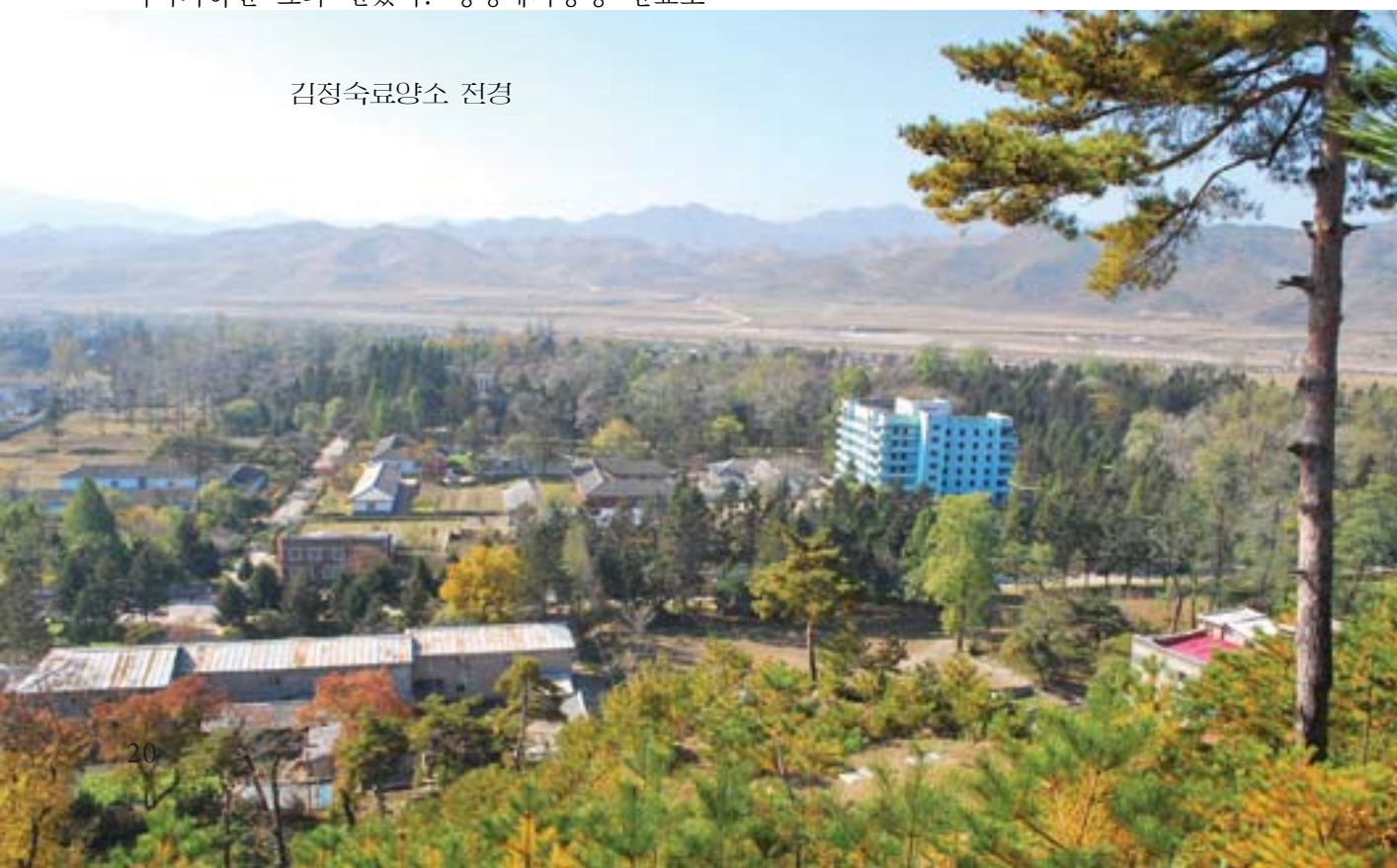
《기자선생님들도 아시다싶이 예로부터 경성땅은 바다경치도 훌륭하고 산천경개 또한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온천이 있어 조선팔승의 하나로 불리워왔지요. 도자기가 유명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정말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읍지구부터 돌아보았다.

읍지구는 온포천기슭을 따라 북서—남동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있었다. 경성애자공장과 경성도자기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중앙 및 지방산업공장들, 공업대학과 군인민병원, 아동공원과 경기장 등 교육, 문화, 보건, 체육시설들이 곳곳에 편리하게 들어앉아있고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건설된 단층, 소층살림집들이 독특한 미를 갖추고있는 읍지구는 참으로 깨끗하고 아담하였다.

경성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전기애자, 전기다리미는 온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도자기 공예품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김정숙료양소 전경



우리는 그 이름이 유명한 경성도자기를 생산하는 로동자들도 만나보고 그들이 만든 멋있는 도자기도 경탄속에 보았으며 우리와 함께 동행한 최옥이 일하는 애자공장에도 들러보았다. 또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염분진과 집삼앞바다에서 장쾌하면서도 아름다운 바다경치를 부감하고 거기에서 한껏 달아오른 몸을 식히기도 하였다.

우리의 걸음은 모래온천치료가 유명하여 온 나라에 소문난 하온포지구에 자리잡은 김정숙료양소로 이어졌다.

갖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짝 들어찬 룡양소는 마치도 천연수림속에 들어앉은듯 하여 상쾌



경성애자공장 애자직장

해방전에는 일제침략자들과 소수 특권계급의 독점물로, 돈벌이수단으로 리용되었던 이곳이 오늘은 근로인민의 재부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봉사기지로 훌륭히 전변되어 이 고장사람들뿐아니라 전국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있었다.

상온포지구의 온천지구에도 주변의 자연경치에 어울리게 온포휴양소가 정결하고 아름답게 꾸려져있어 휴양생들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때없이 찾아오고있었다.

이 고장의 전변은 비단 온천지구만이 아니었다.

농촌과 어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백두산절세 위인들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행복이 꽃피어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전변된 경성군이였다.

창조의 희열속에 자기 고장을 빛내여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더욱더 번영할 이 고장의 래일을 그려보며 우리는 다음 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염분혁명사적지



경성도자기공장 도자기제품진렬실

한 기분을 자아냈다.

료양소는 70여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면적에 자리잡고있었다. 우리는 먼저 룡양소구내에 있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사적이 깃든 해방각과 경성혁명사적관, 수령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셨던 날을 기념하여 세운 사적비를 돌아보았다. 이어 광천치료실과 물리치료실, 감탕치료실들과 룡양각 그리고 온천료양마을에도 들러보았다. 거기에서는 전국각지에서 온 신경계통, 순환기계통, 소화기계통 질병들과 부인성기만성질병, 수술후유증을 비롯한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치료받고있었다.

료양소에는 룡양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게 문화회관, 도서실, 리발소, 목욕탕, 세탁소 등 문화후생시설들과 식당, 온실, 양어장 등이 꾸려져있었다. 이밖에 룡양소에는 외래료양생들을 위한 광천외래과와 려관도 있었다.



보압의 길



부익수

주체101(2012)년 10월 어느 날, 구급환자를 평양까지 후송하고 귀환길에 오른 부익수의 마음은 더없이 기뻐다.

위급한 환자를 소생시킨 기쁨도 컸지만 어렵다던 이번 수술을 성과적으로 집도한 아들 부철휘의 대견한 모습이였다.

(장해. 그 녀석이 이젠 다 컸거든. 세월은 류수같다더니...)

그의 눈에는 김만유병원 뇌신경외과 의사인 아들의 모습에 이어 지나온 나날들이 안겨 들었다.

익수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그에게는 고향을 하던 외삼촌이 한명 있었다.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색다른 음식이나 물건이 생기

면 그의 입에 넣어주고 손에 쥐여주곤 하던 외삼촌이었다.

그러던 외삼촌이 의사자격을 받은지 1년도 못되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외삼촌의 사망은 그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는 외삼촌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어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하여 그는 외삼촌의 못 이룬 소원을 자기가 이루어주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학자가 될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민족차별정책이 우심하고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일본에서 의학자가 된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주체54(1965)년 그는 귀국의 배길에 올랐다. 조국은 그에게 배움의 대문을 열어주었다.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그는 해주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황해북도 인민병원의 의사로, 후에는 뇌신

수술환자에 대한 협의회



야 화

옛날에 육십많은 장사군이 거리에 주막을 차려놓고 고기와 술로 오가는 사람들의 돈을 긁어내고있었다. 어느날 한 나무꾼총각이 장에 가

고기냄새값

서 나무를 팔고 돌아오다 주막집앞을 지나게 되었다. 코를 찌르는 고기냄새에 걸음을 멈춘 총각은 저도모르게 중얼거렸다.

《정말 맛있는 냄새로군.》

그런데 고기와 술이 잘 팔리지 않아 화가 났던 장사군이 그 소리를 듣고 총각의 뒤덜미를 잡으며 호통

경외과 과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그는 환자치료에 자기의 지혜와 정성을 바쳐갔다. 그러나 단순히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만으로 만족할수 없는 그였다.

(나라의 뇌신경외과학발전에 이바지하는것, 이것이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의 사업과 생활은 늘 사색과 탐구로 이어졌다. 그는 잠시 시간이 있으면 수술수기를 높이기 위해 의술이 능한 의사들의 경험도 들었고 밤이면 참고서적의 갈피를 번지며 실무수준을 높여나갔다.

그 나날에 그는 뇌종양과 척수질병, 수두증 등 각종 뇌질병들에 걸린 환자들을 원만히 소생시킬수 있는 실무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가 치료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여러 의학과 학토론회와 경험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그는 의학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심화시켰다. 그는 《성인수두증에 대한 뇌실-복강산트술의 근격 및 원격관찰에 대하여》를 비롯하여 수십여건의 논문들을 집필하였으며 여러건의 창의고안을 하였다. 그가 저술

한 논문이 몇해전 평양국제의학 과학토론회에서 다른 나라 의 학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의 높은 실무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생의 기쁨을 안겨주었다.

어느날 병원으로는 일하던 도중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받아 의식을 잃은 광산로동자가 실려왔다. 환자의 상태는 너무도 치명적이였다.

그는 지체없이 뇌수술을 진행하였다. 긴장한 시간이 흐른 속에 드디어 환자의 뇌를 압박하고있던 100여g의 고인피를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수술후 호전되는듯 싶던 환자의 상태가 며칠이 지나서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혈압과 맥박수가 떨어지고 환자는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대담하게 2차수술을 진행할것을 결심하였다. 수술 과정에 환자의 뇌에서는 또 다른 출혈부위가 발견되었으며 오랜 시간의 수술끝에 그것을 성과적으로 제거하였다.

그후 그는 환자를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환자의 상태에 맞게 치료대책을 세워나갔다. ...

그때로부터 보름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두번다시 생명을 받아안았습니다.》

완쾌되어 병원문을 나서며



휴식의 한때

하는 광산로동자의 말에 부끄러워하는 이렇게 말하였다.

《동무를 소생시킨것은 내가 아니라 고마운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의제도요. 그리고 나는 나를 인간생명의 기사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믿음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요.》

이제는 그의 머리에도 흰서리가 내리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청춘의 활력으로 보답의 길을 걷고있다. 그리고 아들 철취도 자기의 뒤를 잇도록 하고 그 길에 내세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변진혁

을 썼다.

《총각, 냄새를 맡았으니 고기값을 내라.》

하도 어이가 없어 나무꾼총각이 장사군에게 따지고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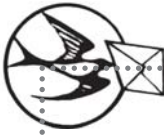
《어보시오, 내가 그 고기를 먹거나 했소? 왜 값을 내라는거요?》

그러나 장사군은 무작정 고기냄새를 맡았으니 값을 내라고 생억지를 썼다. 한참 생각하던 총각은 돈주머니에 손을 가져갔다. 장사군은 돈을 내려는가 하여 입을 헤 벌리고 제자리에 가 앉았다. 그러자 장사군의 앞에 바짝 다가간 총각은 주머니에 있

는 돈을 활랑질랑 흔들어보이고는 태연스럽게 말했다.

《어보, 나는 고기냄새를 맡아 돈을 낸다치고 당신은 돈소리를 들었으니 돈을 내야 할게 아니요.》

이렇게 말한 총각은 아무말없이 가던 길을 재촉하였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호나잔향 만용촌 리인옥고모 앞

조국에 꼭 한번 오십시오

고모님,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추운 겨울에 네 고모의 병이 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버지가 자주 걱정하시기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동화, 동선, 동숙누이들은 다 잘 있는지요. 그 사이 소식이 없어 무척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집식구들이 모여있을 때면 동화, 동선, 동숙누이와 진선이소리를 한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양에 가셨을 때 조국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온갖 성의를 다해주던 누님들을 잊을수 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한 혈육이어서 그러는데도 있지만 자식들모두가 남보다 인정이 깊고 세심한 고모를 닮아서 그런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 진심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조국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잘 있습니다.

내가 고모님에게 편지를 쓴다니까 어머니가 자기 소식부터 먼저 쓰라고 독촉이 불같습니다.

사실 고모님을 만나보고 조국에 돌아왔을 때에도 어머니의 병은 낫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수술을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다고 하면서 몸에 수술칼을 대지 않는 복강경수술을 해주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우리와 같은 평민들은 엄두도 못내는 그런 수술을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고모님생각을 더하는것 같습니다.

고모님도 조국에 오시면 병을 고칠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계절을 잡아 꼭 조국에 오시라는것이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다 잘 있습니다. 만형네 혜영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젠 제법 처녀꼴이 잡혔습니다.

둘째형네 수웅이는 소학교학생인데 뿔을 얼마나 잘 차는지 전국축구반(소학교)학생들의 경기에까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장(경기조직자)으로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수웅이한테 천성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면서 기대가 큼니다. 수웅이덕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신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잘 있습니다.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있는 명영이는 벌써 소학교 4학년생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보다 더 품게 번져 동네사람들은 앞으로 배우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도 시부모공대도 잘하고 남편 뒤바라지도 잘하고 있습니다. 처자랑하면 못난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날이 갈수록 명영이엄마가 제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전거리를 건설할 때 우리 공장이 건설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맡았었는데 공장에서는 거기에 바친 저의 공로가 크다고 하면서 크게 내세워주었으며 나라에서는 훈장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여 그건 저의 공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정도로 저의 뒤받침을 잘해주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두 저와 저의 가정을 부러워한답니다. 부모님들도 며느리를 잘 두어 집안에 화목이 깃든다고 하면서 명영이엄마를 극진히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시샘이 날 정도입니다.

고모님, 저희들은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민족의 넋을 잃지 않고 부강조국건설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하는 고모님이 계시는것을 긍지로 생각합니다. 조국에 한번 와서 변모된 조국의 모습도 보시고 그동안의 회포도 나누며 병치로도 하길 바라는 조카들의 성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꼭 회답을 해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평양시 평천구역 해운1동 42인민반

조카 리영덕 올림



국제김정일상 금메달

국제김정일상 금메달띠

국제김정일상리사회가
결성되었다.

국제김정일상리사회에
는 세계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
사들이 망라되어있다. 리
사회의 소재지는 인디아의
뉴델리이다.

리사회는 인류사상사와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거
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혁명생애를
길이 빛내이려는 진보적인



국제김정일상 상장

국제김정일상 컵(앞면, 뒤면)

국제김정일상 제정

류의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국제김정일상
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리사회는 2012년 12월 24일 국제
김정일상을 제정할데 대한 결정을 공포하고
국제김정일상 제정에 대한 결정과 수여에 관
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국제김정일상은 광명성절(김정일대원수님
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계기로 나라와 민족의 자
주성을 위한 투쟁, 온 세
계의 자주화와 평화위업
실현, 인류문화발전에 특
출한 기여를 한 모든 나라
의 정계, 사회계,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경제인들
에게 수여하게 된다.

국제김정일상 수상자에
게는 국제김정일상 상장과
금메달, 컵을 수여한다.

국제김정일상 수여사업
은 국제김정일상리사회가
조직진행한다.





블록생산공정



산업건설 경량강철 구조물들

각종 수지판과 가구판, 휘틀판을 생산한다.



수지창, 늪창 생산공정

대동강건재공장

평양시 교외에 종합적인 건재생산기지인 대동강건재공장이 있다.

공장에는 차도블록직장, 수지건재직장, 경량강철구조직장, 철판지붕재직장 등 여러 직장들이 있다.

공장에서는 지난해에만도 창전거리, 룡라인민유원지 등





철관지붕재직장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일부



수십개 단위들에 14만여㎡의 차도블록과 수십만㎡의 발포수지를 생산보장하였다.

또한 철관지붕재, 차열복합판, 각종 수지판, 수지창, 알루미늄수지복합창, 단점판, 철울타리와 계단란간을 비롯한 수많은 건재들을 생산하여 전국의 여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었다.

건설기일을 훨씬 줄이고 건축물의 질을 높일수 있는것으로 하여 이 공장의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높다.

공장일군인 강철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평양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수많은 건설들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장이 맡은 몫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장에서는 맵시있고 질좋은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는것과 함께 날로 발전하는 건설의 현대화수준에 맞는 각종 건재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강성국가건설장들마다에 보내주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식용향
생산



제품들의 질제고를 위해 ...

평양시 락랑구역의 품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있는 평양향료공장이다.

공장에는 식용향생산실, 공업향생산실, 향수생산실, 분석실 등 여러 실들이 있다.

최신향료생산설비들을 갖추고 자동생산체계가 실현된 공장에서는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당과류를 비롯한 각종 식료품들과 비누, 크림, 물비누 등 갖가지 일용품생산에 필요한

향수생산과
그 제품들





초립계추출

평양향료공장

수십가지의 식용향료와 공업용 향료를 생산하고있다.

그뿐아니라 남너향수, 방안향수, 자동차향수를 비롯하여 여러 용도의 향수들도 생산하고있다.

모든 향료생산에는 갖가지 과일향들이 리용되고있다.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하여 국내의 이름있는 여러 공장, 기

업소들에서 이 공장의 향료로 생산한 식료 및 일용품들에 대한 평이 대단하다.

공장에서 생산된 향료들이 질이 높고 다른 나라의 향료에 비해 가격이 높으면서도 정유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공장지배인 김명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향료제품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질좋은 향료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공업향제품

창 전 해 맞



민족식사실



유럽식사실



커피점

창전거리에 일떠선 창전해맞이식당이 손님들로 흥성이고있다.

2층으로 건설된 창전해맞이식당은 대중식사실과 커피점, 슈퍼마켓 등으로 되어있다.

1층에는 대중식사실과 각종 과일과 남새, 우유 및 고기제품들을 판매하는 슈퍼마켓, 강냉이튀기며 음료들을 봉사하는 간이매대, 고기 및 수산물상점이 있다.

대중식사실에서는 소고기비빔밥과 철판닭고기비빔밥, 철판햄버거비빔밥, 남방짜장면, 메밀랭면 등 구미에 맞는 여러가지 고급료리들과 곁들여나오는 국, 고기완자찌, 김치, 오미자차를 맛볼수 있다.

고기 및 수산물상점에서 봉사하는 상품의 가치는 매우 다종다양하며 그 질 또한 높은 수



이 식 량



준이다.

2층에는 식사실과 빵매대, 커피점이 있다.

각 나라들의 풍습과 특성을 살려 높은 수준으로 꾸려진 식사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요리들과 주식류들을 봉사하고 있다.

빵매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빵들이 진열되어있으며 거기에서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그 자리에서 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일빵 주문봉사도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안온한감을 주는 커피점도 독특하고 감미로운 커피맛과 어울려 더욱 특색있게 안겨온다.

오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2층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슈퍼마켓





종합훈련관

양 각 도 체 육 존

육체훈련관



예술체조훈련관



기계체조훈련관





야외축구훈련장

풍치수려한 대동강의 양각도에 체육촌이 자리 잡고있다.

연건축면적이 수만㎡에 달하는 양각도체육촌은 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체육활동기지이다.

체육촌에는 종합훈련관과 룽구 및 탁구훈련관, 체조 및 육체훈련관, 2개의 축구훈련장 등이 있다.

벨트라스를 이고 특색있는 건축형식으로 일떠선 종합훈련관은 배구, 룽구, 송구를 비롯한 실내경기들을 거의나 치를수 있게 되어있다.

체육촌에는 또한 체육과학기술지식보급실과 전술토의실을 비롯하여 체육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시설과 설비들도 그뿐하게 갖추어져있다.

뿐만아니라 4동의 합숙과 2동의 식당들, 목욕탕, 리발실, 오락장을 비롯하여 선수들과 감독들의 숙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모든 조건들도 마련되어있다.

체육촌의 모든 건축물들의 난방은 지열을 리용하여 보장할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 여기서는 기관차체육단의 선수들이 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을 쟁취하기 위하여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권투훈련관

탁구훈련관



식당과 합숙





리조원

대학생씨름군

—대학생이 황소를 타다니?! 그것도 네번씩이나 ...

—그는 우리 신의주경공업대학 기계공학부 3학년 학생입니다.

이것은 얼마전 평양-신의주행급행열차에서 여행자들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이다. 당시 그들과 함께 있던 우리는 그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대항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4련승한 리조원을 찾았다.

나이는 34살, 키는 186cm, 몸무게는 100kg, 짙게 벌어진 어깨에 짧게 리발한 머리, 교복을 입은 준수한 모습... 대학에서 만난 그의 모습은 대뜸 우리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했다는 그의 경력을 놓고보면 씨름과 함께 탐구심이 강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는것은 그의 취미였다.

그의 이 취미들은 후에 쌍둥이처럼 되어 마침내 오늘에는 대학생씨름군이 되게 하였다.

물론 공부와 훈련을 동반하는것이 헛치 않았다. 강의를 받고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생의 생활에 구간들기, 달리기 등 정상적인 씨름훈련까지 곁들여야 하니 그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다. 하기에 그는 일단 강의에 참가하면 적극적인 학생이 되었고 훈련에 들어서면 정열적인 선수가 되었다. 때로 한건의 학과론문을 완성하기 위해 며칠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고 아버지와 씨름묘리와 수법을 토의할 때에는 저

량강도 백암군 읍에서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씨름을 즐겨했다. 군적인 씨름경기에서 해마다 우승하던 아버지(리보찬)의 모습이 눈에 익어서인지 그가 있는 곳에서는 가끔 동리아이들의 씨름판이 벌어졌다. 지금도 그의 사진첩에는 자기보다 한두살우인 아이들과도 힘을 겨루는 색이 바랜 사진들이 붙어있다.

소학교시절에 벌써 시계며 놀이감 등 간단한 제품들의 기계적원리를 알아냈고 중학교 5학년때에는 도적인 중학생들의 글짓기경연에서 입선

우리 나라에서는 해당시기 왕의 즉위년 혹은 간지법에 의하여 년대계산을 해오다가 1876년부터 1895년사이에 조선봉건왕조의 성립

년도인 1392년을 원년으로 하는 《개국기원》을 사용하였다.

1896년부터는 고종의 황제년호인 《건양》과 함께 《서력》(현재 국제

상 식

우리 나라에서

녁밥상을 물리기가 일쑤였다. 경기를 앞둔 때에는 단 1~2초안에 결판되는 씨름경기의 우승을 위해 강의에서 배운 력학적원리들을 되새기며 무릎치기, 배지기, 호미걸이, 안걸이, 접치기 등 많은 경기수법들을 부단히 몸에 익히었다. 그가 지난해 제10차 대항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자기의 특기인 배지기와 접치기로 두회전을 모두 통쾌하게 결속하는데도 그의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열정이 슌배어있다.

4련승의 나날을 돌이켜보며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라에서는 민족체육경기인 씨름을 적극 장려하고 씨름애호가라면 누구나 참가할수 있는 대항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를 해마다 전통적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우승한 선수에게는 특별히 제정한 금소방울과 대항소를 안겨주고 온 나라가 알도록 크게 내세워줍니다. 그런가 하면 1등하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경기에 떠날 때 처럼 도의 책임일군들로부터 마을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나와 축하해줍니다. 이 고마운 제도와 사람들에게 꼭 우승으로 보답하고싶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성과가 있다. 전공과목분야에서의 가치있는 논문 10여건 발표, 주체93(2004)년에 진행된 제1차 국제무도경기대회 씨름경기에서 1등, 제4, 5, 6차에 이르는 대항소상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각각 2등, 그후 련속 네번(주체98(2009)—주체101(2012)년)에 걸쳐 1등...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조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민족체육전통을 빛내여가는 길에서 앞장서있는 리조원, 그는 참으로 돋보이는



신의주경공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리조원

대학생씨름군이였다.

그는 아들(리평연)도 앞으로 컴퓨터기술자로, 씨름군으로 키우려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흥정혁

리조원의 가정



적으로 통용되고있는 태양력)을 썼다.

1997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년호가 제정되어 년대를 계산하고있다.

주체년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어있다.

력서표기의 력사

광명을 주는 사람들



초자체망막안내수술

보건성 평양안과병원에서 초자체망막안내수술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안겨주고있다.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2011년부터 초자체망막안내수술(고도로 정밀화된 광학장치와 수술설비, 발전된 수술재료와 높은 수술수기를 요구하는 대단히 어려운 수술)을 본격적으로 진행. 수술후 회복률은 80~90%수준에 도달. 몇년 전까지만 하여도 이 수술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일반안과수술에 대한 림상경험도 부족하였던 새세대 의료일꾼들이 수술을 손색없이 진행. 그들의 평균나이 30대 중엽 ...

이것은 앞선기술돌파는 년한이 하는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해답을 준다.

병원에서 초자체망막안내수술에 대한 견해를 세우게 된것은 평양안과병원이 개원(주체94(2005)년)되어 얼마 지나서였다.

어느날 병원에서는 찾아오는 환자들속에서 실명한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기성리론으로는 내과적치료를 하게 되어있었으나 그런 방법으로는 효과를 빨리 볼수 없었다. 그들에게 하루빨리 광명을 안겨주고 병원이 안과연구중심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반드시 초자체망막안내수술을 본격적으로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병원자체가 새로 조직되다니 대다수가 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들이였고 더우기 그때 우리 나라에서는 초자체망막안내수술이 광범하게 진행되지 않고있었다.

평양안과병원 의료일꾼들의 실력으로는 이 분야를 개척할 수 없다는것이 당시 우리 나라에 와있던 국제협조대표단 성원들과 안과부문 일부 일꾼들의 견해였다.

《솔직히 말하여 저로서도 안과가 전공이 아니여서 확신

이 많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보다 조건이 좋지만 이 수술분야를 개척하지 못한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동계급이 CNC공작기계를 척척 만들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가 고있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는가>고 생각하니 신심이 생겼습니다.》라며 원장 류은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았다.

새세대 의료일꾼들이 초자체망막안내수술은 발전된 나라들의 독점물이 아니라며 기어이 자기들의 힘으로 앞선기술을 정복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기술부원장을 중심으로 최군진, 김만석, 김철민, 김경애 등 전망성있는 의료일꾼들로 연구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김경애는 말하였다.

《결심하고 나섰으나 솔직한 말로 대학과 박사원을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받았지만 한두해밖에 안된 우리여서 이 수술에 대한 표상만 있었지 수술을 하는 것을 본적도 없었고 더우기 일반안과수술도 얼마 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눈알속까지 접근해보지 못한 <생동이>들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장선생님을 비롯한 병원의 책임일꾼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일반안과수술수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병원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수많은 선진의과학도서들과 동영상자료들이 보장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 눈으로 현대의학이 도달한 수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수술을 하는 기회

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작 수술에 진입하고보니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수술결과가 시원치 못하였다.

그때 그들을 더욱 분발시킨 것은 앞선기술을 기어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각오와 배짱이었다.

수많은 선진외과학도사들의 매 폐지들은 충분한 연구와 그에 따르는 실험을 거쳐서만 번져졌다. 주 2~3회의 안과 질환치료와 수술을 위한 협의회, 100번이상의 수술방법 눈에 익히기, 수술시간단축과 수술후 우발증과 시력회복에 따르는 엄격한 수술총화, 손의 유연성과 정확성을 위한 수백, 수천 번의 동물실험을 통한 미세수술 진행 등을 통하여 그들은 어려운 수술수기를 한걸음한걸음 습득해나갔다.

병원에서는 원장방과 수술실

수술후 환자상태에 관심을 두고 정성을 다해가는 의료일군들



기술자료들을 통해 실력을 높여간다.

에 컴퓨터와 감시카메라를 런결 시켜놓고 수술진행 전과정을 지켜보면서 결함과 극복방도를 모색해나갔다. 마침내 그들의 높은 수술수기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기쁨을 안겨주기 시작하였다.

주체99(2010)년말 유리체와 안저수술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초차망막과의 발족은 이곳 의료일군들의 임상치료와 연구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킨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주체 100(2011)년 1월, 증식성유리체망막증에 의한 망막박리로 실명한 그것도 나이가 예순이 지난 환자에 대한 수술이 제기되었

다. 그때까지 제기된 수술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수술이 성공하였다. 본인은 물론 자식들까지도 포기하였었다. 그러나 환자(남포시에 살고있는 조영희)는 그들의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속에 광명을 찾았다.

오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앞선기술을 정복해나가는 세세대 의료일군들의 힘찬 첨단돌파열의속에 돈한푼 들이지 않고 값비싼 초차체망막안내수술을 받으며 광명을 되찾고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있다.

앞선기술은 이미 몇몇 발전된 나라의것이 아니라는것을 세세대 의료일군들은 실천으로 증명해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유선화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 식

뇌출혈후유증때 민간료법

뇌출혈후유증때 민간료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정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몇가지를 아래에 소개한다.

① 마늘 5~10g을 하루 3번 밥먹을 때 함께 먹는다.

② 뇌출혈로 정신을 잃고 말을 못하는데 백반 10~20g에 생강 30g을 넣고 달여서 하루 2~3번에 나누어 조금씩 먹으면 곧 가래를 뱉고 눈을 뜨며 정신을 차린다.

③ 파 250g과 소금 500g을 함께

담아 천에 싸서 피부가 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여 배꼽과 아래배에 대준다.

④ 양파껍질 5~10g을 300ml의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절반되게 달인것을 3번에 나누어먹는다.

정월대보름명절과 우리 생활

조국땅 어디에서나 민족의 향취가 넘쳐흐른다. 얼마전 어느 일요일 우리는 조선민족의 미풍양속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장려하고있는 가정으로 소문난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 1인민반 최춘희녀성의 가정을 찾았다.

따뜻한 기운이 넘쳐나는 방안에 들어서니 최춘희녀성은 손녀 송미와 옷놀이를 한창 하고있었고 사위인 허광성과 손주 태웅이는 장기놀이 에 여념이 없었다.

우리가 정월대보름날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것을 알고싶어 이 가정을 찾아왔다는것을 알게 된 최춘희녀성은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정월대보름명절은 설명절다음에 맞는 첫 민속명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이날을 즐겁게 맞고보냈지요.

정월대보름날도 가까와오는데 마침 기자선생과 함께 우리 손자, 손녀들도 더 잘 알라고 내 오늘 몇마디 합시다.》

이렇게 최춘희녀성의 구수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보통 음력 1월 14일부터 보는데 14일을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대(큰)보름이라고 하였다.

정월대보름날에는 달맞이, 연피우기, 바줄당기기, 바람개비놀이, 가무놀이 등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성대히 진행된 놀이는 달맞이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마다 정월대보름날저녁에

온 가족이 대동강반에 나가 보름달을 즐겁게 바라보곤 합니다. 그달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과 식구들의 건강을 바라기도 하고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며 새해에 더 큰 성과를 거둘 결심을 갖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다.

정월대보름날에 그의 가정에서는 달맞이뿐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웃과 나누어먹으면서 즐겁게 지낸다는것이였다.

그는 작은보름날 낮에는 국수를 먹고 대보름날 아침에는 찬술(귀밭이술)을 한잔씩 마시며 대보름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오탁밥과 약밥, 9가지 마른나물반찬, 엿, 부름까기 등이 있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오탁밥과 마른나물반찬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주었다.

오탁밥은 지방마다 넣는 곡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는 흰쌀, 기장쌀, 보리쌀, 찰수수쌀, 팥이라고 한다.

흰쌀은 찬물에 씻어 불구며 기장쌀은 앓히기 전에 비벼서 씻는다. 찰수수쌀은 더운물로 깨끗이 씻어 붉은 물을 뽑은후 미지근한 물에 40분 정도 불구어놓는다. 그리고 팥은 찬물에 알맞춤하게 삶아서 건져놓는다. 보리쌀은 씻어 불구었다가 끓는물에 앓혀 푹 삶아 건져놓는다. 이렇게 밥지를 준비가 다된 다음에는 가마에 먼저 팔물을 붓고 끓을 때 삶은 보리쌀을 퍼고 흰쌀, 찰수수쌀, 기장쌀, 팥을 섞어앓힌 다음 센불에서 끓이다가 불을 약간 낮추어 끓인다. 물이 잦아들면 한번 저어주고 10~15분간 열을 더 준 다음 불을 끄고 뜸을 들여 고루섞어 쪄낸다.

최춘희녀성은 오탁밥을 맛있게 짓는 요령뿐아니라 마른나물반찬도 맛있게 만드는 묘리를 가지고 있었다.

옛날부터 정월대보름날에 묵은 나물을 먹으면 그해에는 더위를 타지 않고 여러가지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우일, 고사리, 고추일, 가지꼭지, 산나물, 무우오가리, 도라



지, 호박오가리, 고구마줄기 등 마른나물로 반찬을 해먹었는데 이러한 풍습은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였는가를 보여준다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음식맛을 돋구려면 간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데쳐서 볶는 나물에는 굵은 소금을 쓰고 메우는 나물은 가는 소금을 써야 간도 잘 배고 고유한 맛이 나지요. 그리고 마른나물은 반드시 하루전에 데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서 물에 우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써야 합니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하는 우리에게 그는 말하였다.

《고맙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정

도는 알고있지요. 민족의 전통을 옹계 살려나가는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기에 난 자식들이 민속명절 등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이어나가도록 하게 하려고 정월대보름명절뿐아니라 민속명절들을 맛을 준비를 품들어하곤 한다오.》

최춘희여성의 가정뿐이 아닌 조국의 모든 가정들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속전통과 풍습을 적극 살려나가고있기에 온 나라에 민족적향취가 가득 차넘치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생기와 활기를 띠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유모아

《흥정이 되거든 건져라》

몹시도 린색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마을어구에 있는 깊은 내를 건드다가 그만 물에 빠져 생명이 경각에 이르게 되었다.

바빠난 아들이 마을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여러분네들, 돈을 얼마든지 올릴테니 우리 아버지를 좀 건져주세요!》

그 바쁜 정황속에서도 이 말들은 아버지가 간신히 고개를 물위로 내밀고 목이 터지도록 웨쳤다.

《이 자식아! 얼마든지 돈을 주겠다니 그게 웬 말이냐? 동네사람들과 말을 해봐서 흥정이 되거든 나를 건지고 한푼이라도 넘거든 애당초 건질 생각을 말아라!》

질어가는 민족적색채

해마다 조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진행된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제10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피복을 전문으로 하는 교원, 연구사, 학생, 창작가, 기능공들과 가정주부를 비롯한 희망자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의 주제는 《절세위인들의 념원어린 우리 식 옷》이었다.

출품된 옷들은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조선옷들과 남녀양복류를 비롯하여 1 300여점이나 되었다. 옥색, 하늘색, 연분홍색 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밝고 부드러운 색의 치마저고리들 그리고 보기에도 깜찍한 복건, 전복에 형형색색의 노리개

들까지 결달은 어린이들의 색동옷, 그런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맵시나는 남녀계절옷들...

그 하나하나의 제품들에는 참가자들의 지혜와 기술이 반영되어있었다.

전시회기간 옷도안창작과 설계, 가공에 대한 강습,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시품들에 대한 본보기출연, 피복기술에 대한 도서 및 다매체편집물 보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해마다 전시회에 참가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강원도 원산시 동해조선옷점 재단사 리향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옷점에서는 옷도안을 맡은 창작가로부터 옷을 만드는 재봉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전시회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전시회는 우리 인민의 옷차림을 제일 문명하게 해주시려 온갖 헌신과 심혈을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찌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옷차림문화를 민족적전통을 살리면서도 시대적미감에 맞게 적극 발전시켜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적색채에 현대적미를 갖춘 아름답고 우아한 맛을 살린 조선옷, 계절옷들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하여 민족의 유산인 조선옷 전통이 더욱 빛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기자 조선일



그리움은 끝이 없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두 번째로 맞는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광명성절, 불려만 보아도 자애로운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이 사무치게 어려와 이 가슴 젖어든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군님 계시는 조국은 우리들의 집이었고 그이는 한 나라의 령도자 이시기 전에 우리 해외동포들의 친아버지이시였다. 그래서 지난해 광명성절날에도 우리는 장군님생각에 서로 눈물만 흘리면서 끼니를 번지였으며 온 한해 장군님생각으로 날과 달을 이어왔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는 곳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장군님의 마음속 가까운 곳에는 우리 해외동포들이 있었다.

곁에 있는 자식보다 떨어져있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친아버이사랑이 늘 곁에 있어 우리 재중동포들은 이국땅에서 남다른 민족적공지와 사랑을 안고 보람있는 삶을 누려올수 있었다.

그 사랑속에 나도 동포사회의 경제일꾼으로서 터 오늘은 총련합회의 의장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동포대중을 애국의 리념으로 이끌어어나가는 이날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준것은 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민족의 존엄을 떨쳐가시는 장군님의 모습이였고 그이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믿음이였다.

나라가 겪는 준엄한 시련을 보며 우리 동포들이 일시나마 걱정애 싸여있을 때에 인공지구위성발사로 신심을 안겨주시였고 적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해지면 강력한 군사적억제력으로 드센 배짱과 자부심을 안겨주시였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를 조국에 불려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조국의 명승지들에서 마음껏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해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로 들끓는 현실을 체험하게도 해주시였다. 그리고 부강조국을 위한 일에 조그마한 기여를 하면 크게 내세워주시였으며 동포들의 병치료를 위해서라면 막대한 자금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 이처럼 해외동포들을 한식술로 포근히 안아주시였기에 우리들은 그이와 정을 피출처럼 맺고살아왔고 그이를 어느 하루 한시도 잊고 산적이 없었다.

하기에 장군님에 대한 우리들의 그리움은 끝이 없었고 피눈물의 그날로부터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그이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다

바치였다.

우리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신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더 정중히 모시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기울여 왔으며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한 민족최대의 명절들과 조국의 명절때마다 길림육문중학교와 안도현 소사하를 비롯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발자취가 어린 곳들을 답사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달래이곤 하였다. 또한 지부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동포대중의 호상리해와 단합을 더욱 굳게 이룩해나갔다.

이 날에 우리는 장군님께서는 가신것이 아니라 어제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것을 절감하게 되었다.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곁에 와닿았다.

원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장군님을 것처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장군님 추모행사들에 불려주시였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를 비롯하여 조국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이 올리는 인사도 다 받아주시였으며 기념사진도 함께 찍어주시였다.

나는 지금도 잊을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 서거 추모행사들과 주석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나를 주석단에 세워주시고 내가 올리는 인사를 고맙게 받아주시며 녀성의 몸으로 동포조직을 이끌어어나가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한없이 소박하고 겸허하시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신 그 분은 정녕 장군님과 똑같은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그래서 나는 장군님과 원수님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속인사를 드리고싶어 《우리는 태양을 보았습니다》라는 노래를 짓고 동포들과 함께 제28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불렀다.

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데로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강성국가건설에 참담게 이바지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꾸려나가겠다.



그가 지닌 애국의 마음

지난해 10월 재중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그들가운데는 보통키에 다부진 체격의 한 동포가 있었다.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눈매, 친근감을 주는 웃음과 낮은 힘이 느껴지는 말씨...

그는 재중조선청년경제인연합회 김길원동포였다.

그가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을 시작한것은 주체87(1998)년 봄 처음으로 조국을 다녀온후부터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그의 눈에 비껴든 조국의 현실은 모든것이 새롭고 놀라왔다. 그중에서도 그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준것은 건축물들의 이름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함께 새겨져있는 것이었다. 그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조국청년들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 비록 몸은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도 숨결도 언제

나 조국청년들과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 그는 동포청년들과의 사업에 몸을 잠그게 되었다.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에서 일하는 나날 그가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것은 동포청년들을 찾아내어 조직에 묶어세우는 사업이었다. 그는 자신뿐아니라 많은 동포청년들도 조국을 알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동포청년들이 중국의 넓은 지역에 살고 있고 생활유지에 바쁘다보니 만나기가 힘들었다.

한 동포청년을 만나기 위해 어떤 때는 많은 걸음을 걸었고 어떤 때는 빠스나 기차를 타기도 하였다. 그렇게 찾아간 걸음이 다 보람있는것은 아니었다. 의사소통도 해보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했고 먼곳에 간 동포청년을 기다려 려관신세를 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한번 찾아가서 안되면 두번, 세번을 찾아가서 끝내는 동포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야말았다. 그 길에서 그는 자기의 동생인 김길홍동포도 애국사업에 내세웠다.

찾아오면 먼저 가정의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도와줄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힘자라는것 도와주는 그의 진정에 동포청년들은 감동되었다. 동포청년들은 그를 통하여 동포청년조직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과 조국의 현실에 대하여 알게 되면서 조직과 조국을 더 가깝게 느끼곤 하였다.

많은 동포청년들이 조직에 망라되면서부터 그는 한결 더 바쁜 사람이 되었다.

조국의 현실을 알고싶어하는 동포청년들을 위해 사진전시회도 조직하고 조국의 청년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항일혁명투쟁력사가 깃든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도 진행하여 동포청년들이 대원수님의 항일혁명업적을 잘 알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포청년들의 조국방문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들이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그를 동포청년들은 반겨맞군 하며 제기되는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럴 때면 그는 자기 사업에 대한 공지와 보람을 느끼었다.

그러한 그를 조국에서는 지난해에 있는 청년절경축대회대표로 불러주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도 찍도록 내세워주었다.

결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 더 마음쓰고 내세워주는 어머니조국, 그 조국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그는 오늘도 애국의 길을 걷고 있다.

언제봐야 말이 적고 자기를 내세울줄 모르는 김길원동포, 우리에게 그는 그가 무척 돋보이였다.

본사기자 변진혁

김정일애국주의를 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지부와 동포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감으로써 동포사회를 흥하게 해나가겠다. 또한 청년들과 경제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동포

사회에 애국애족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게 하고 모든 동포들이 조국의 통일과 부강조국건설에 특색 있는 기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이사 최은복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다

잊을래야 잊을수 없던 그날,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한해가 다 지나가는 12월에도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걸으시는 장군님의 현지도소식을 전해들으며 조국을 그리던 우리들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울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무너지는것만 같았고 눈앞이 새까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장군님은 곧 존엄높은 조국의 모습이었고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여서 그이께서 안계시는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는 우리 해외동포들이었다. 이번에 조국에 도착할 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장군님 그리운 생각에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국땅을 밟는 순간부터 장군님은 가신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

게 되었다.

평양역을 나서는데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내 눈앞에 안겨오는것이였다. 또 얼마쯤 가느라니 장군님의 태양상이 어느 한 청사에 모셔져있었다. 환히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느라니 그이께서 마치 해외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왔다고 반겨맞아주시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인사를 드렸다.

《장군님, 정말 뵙고싶었습니다.》

조국방문의 나날 나는 가는 곳마다에서 그렇게도 뵙고싶던 장군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 따뜻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았다.

조국땅 여러곳에는 장군님의 동상과 그이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가 모셔져있었고 대원수님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영생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인민들에게 배



풀어지던 혜택도 그대로였고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장군님께서 계실 때와 똑같은 사랑이 와 닿았다.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다. 그이는 영원히 사랑하는 조국과 한생 아껴오신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것을 나는 이번 조국방문기간 더잘 알게 되었다. 장군님과 함께 있기에 마음이 든든하다. 장군님은 나의 심장속에,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들모두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함빈시지부 리형미



주령복을 누리는 민족

나는 두번째로 고국에 와본다.

몇년전 모스크바고통련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처음 고국에 왔을 때의 그 기쁨이 또다시 가슴에 넘쳐난다.

언제나 눈에 삼삼히 안겨와 못 견디게 그림던 평양이였다.

깨끗하고 풍치수려한 평양의 모습은 그 사이 정말로 몰라보

게 변모되였다. 그러나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우리를 한민족, 한피줄이라고 친혈육을 만난것처럼 반가와하던 평양사람들의 모습은 예전그대로였다. 마음속진정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울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국인민들을 볼 때마다 나도 마음이 기뻐지고 웃음이 피어났다. 그래서인지 고국에 온

기간에 내가 한 10년은 더 젊어졌다고 함께 온 동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데 내 생각도 그들과 다를바 없다.

고국인민들모두가 나라의 혜택으로 근심걱정없이 살고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지내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고국이 이처럼 안정되고 인민들이 아무런 사회적불안을 느끼지 않고 마음편히 살고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고.

나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0돐을 경축하여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과 거기에서 연설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았다.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니신 령도풍모와 령군술, 인품과 인덕 등을 그대로 지니고계시였다.

그래서 고국인민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한 공지에 그토록 넘쳐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고국방문의 나날에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눈을 뜨고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 조선인민의 한세기전의 피눈물나는 과거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국에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듣고 보았다. 고국에서 흘러간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나는 많은것을 체험하였다.

나는 모스크바에 돌아가면 새세대 동포청년들에게 고국의 눈부신 현실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더 잘 알고 민족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민족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리 게라

만복화

지난해 4월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새로운 꽃을 육종하여 내놓았다.

꽃의 이름은 만복화이다. 이름그대로 긴 잎은 만복이 샘솟는감을 주며 진한 분홍빛을 띠고 테두리를 따라 자주빛점무늬가 박혀있는 입술모양꽃잎과 흰색바탕에 연분홍빛을 띤 꽃잎과 꽃받침잎으로 되어있는 꽃송이는 참으로 아름답다.

만복화는 란과 심비디움속에 속하는 사철푸른 여러해살이화초로서 꽃이 아주 고울뿐아니라 제일 오래 피는 꽃들중의 하나이다.

만복화의 높이는 50~60cm이다. 줄기는 압축되고 둥글게 살진 거짓비늘줄기로서 뿌리목에 여러개가 모여있다.

매 거짓비늘줄기마다에서 8매정도의 잎이 나온다. 잎은 길이 55~65cm, 너비 2. 2~2. 5cm정도로서 약간 늘어져있다.

줄기밑에서 45~50cm정도의 꽃대가 길게 나온다. 매 꽃대에는 10~15개의 꽃이 올리피여 송이꽃차례를 이룬다. 꽃의 직경은 10~11cm이다.

꽃은 12월부터 피어 석달이상 가며 꽃이 핀 대를 잘라 물병에 꽂아놓아도 한달이상 간다.

5°C정도의 낮은 온도와 30°C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도 견디므로 어디에서나 쉽게 재배할수 있는 좋은 꽃이다.

애국애족의 전통을 이어

《인내천》, 《보국안민》을 기본리념으로 삼는 동학이 창시된지도 150여년이 되었다.

천도교는 그 리념으로나 력사적으로 볼 때 애국적인 민족종교라고 말할수 있다.

천도교는 《보국안민》의 구호를 들고 봉건을 반대하고 칙령을 반대하는 투쟁, 나라의 근대화를 실현하고 사회적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왔다. 그것은 갑오농민전쟁과 3. 1인민봉기때 수많은 천도교인들이 떨쳐일어난것을 놓고도 알수 있다.

3. 1인민봉기를 발단시켰던 민족대표들가운데서 그리스도교인, 불교인들과 함께 천도교인이 들어가있었으며 당초의

발기를 천도교측에서 하였다는 사실과 300만이나 되는 전국 천도교인들의 파반수가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던 사실들은 그 반일투쟁에서 천도교인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3. 1인민봉기실패후 천도교의 지방조직과 그에 속해있는 절대다수의 교인들은 이러저러한 합법, 비합법조직들을 못하고 일제의 군사적강제를 반대하는 여러 갈래의 투쟁을 벌렸다. 안타까운것은 그들에게 똑똑한 투쟁방략이 없었고 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줄만 한 지도력량이 없는것이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천도교인들은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일꾼들은 평양원예지도국 일꾼들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봄이나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꽃이 피는 새 품종의 꽃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피라는 사색과 열정을 바치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들여온 심비디움가운데서 21개쌍을 섞붙임하여 1만 2 000여포기를 번식시켜 2년전 3월 평양화초연구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해 12월 수많은 포기가운데서도 꽃이 크고 아름다운 새로운 품종의 심비디움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만복화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에게 천만가지 행복을 안겨주시려 한생을 깡그리 바치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새 품종의 꽃을 피운 평양화초연구소 과학자들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이 꽃의 이름을 만복화로, 꽃이 정말 곱다는 친필을 남겨주시였다.

절세의 위인들이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만복을 누려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 만복화, 꽃은 앞으로 온 나라에 만발하여 더욱더 풍만한 향기를 풍기게 될것이다.



김일성동지를 모시여 진정한 애국애족의 투쟁을 벌리게 되였다. 당시 천도교인들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선의 《한울님》으로 칭송하면서 그이의 항일혁명적 적국 지지성원하였다.

강제하, 강병선, 공영 등 천도교의 애국적인 선각자들의 뒤를 이어 1930년대 후반기에는 박인진, 리창선과 같은 천도교인들이 많은 천도교인들을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항일무장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였다. 수백만 천도교인들은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오매불망 바라던 새날의 계명성이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울려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항일무장투쟁의 나날에 발휘된 선배동덕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은 오늘도 북과 남의 모든 천도교인들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업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

오늘 우리 천도교인들이 천도교의 애국애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길은 7천만겨레가 일일천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것이다.

1930년대에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해방이 지상의 대과제였다면 오늘은 분열된 조국을 통일조국으로 만드는것이 절대적 종지로, 리상으로 되고있다.

민족우에 신이 없고 민족우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리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심연도 장벽도 뛰어넘어 못할것이 없다는것은 오늘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의 한결같은 종지이며 날과 더불어

더욱더 절감하는 현실이다.

오늘 통일의 앞길에는 외세와 민족을 등진 사대매국세력에 의해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시련도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는 겨레의 단합된 힘을 막을수 없다.

북과 남의 모든 천도교인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절대적 종지로 하여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과감한 애국투쟁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이 있고 애국애족의 녁과 의지를 지닌 겨레가 있기에 통일된 강성국가는 반드시 이 땅우에 일떠서게 된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윤정호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한강토에서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여 발전시켜온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설명절을 크게 맞이하고 보내었다.

설은 새해에 들어서면서 첫번째로 맞는 명절로서 옛기록들에 의하면 《세수》, 《년수》, 《원단》, 《원일》이라고 하였고 민간에서는 흔히 우리 말로 《설》이라고 불려왔다.

우리 나라의 설명절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천년강국이었던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정초가 되면 강가에 모여서 왕이 참석한 가운데 돌팔매놀이와 눈끼엇기와 같은 편싸움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은 무술을 좋아하였던 고구려사람들이 설명절을 활기있는 여러가지 놀이를 하면서 쇠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민들이 설명절을 쇠는 풍습은 세배, 설음식준비 및 음식들기, 설명절놀이 등이였다.

세 배 명 절

우선 설날새벽에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설인사를 하였는데 음식상을 간소하게 차려놓고 하는 조상에 대한 설인사를 《차례》라고 하였다.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웃어른들에게 인사를 하였는데 이것이 세배이다. 세배는 집안의 웃어른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며 다음에는 마을의 웃어른들,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하였다.

설날에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 레물을 마련해놓고 세배하러오는 사람들을 맞이하였으며 세배를 하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게 기념품을 주기도 하였다. 세배하러 다니는 길에 친

우리 민족의 첫 국가 고조선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시조국가이며 첫 노예소유국가이다.

근 3 000년간 평양을 수도로 하여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있었다.

고조선의 정식국호는 《조선》이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먼 옛날에 있었던 고조선이라고 썼으며 조선봉건왕조시대에도 저들의 왕조와 구별하여 그대로 불려왔다.

고조선은 건국시조인 단군의 이름을 붙여 단군조선으로도 부른다.

평양일대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아 넓은 지역들가운데서 가장 먼저 원시문화가 발생, 개화할수 있었으며 그런 문화에 기초하여 국가도 먼저 출현하게 되었다.

B. C. 4 000년기 후반기에 다른 지역보다 일찌기 청동기문화를 개척한 평양일대에서는 하늘신을 최고신으로 믿는 박달부족이 동물을 숭배한

씨족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족련맹을 이루었다.

B. C. 4 000년기말에 이르러 부족련맹의 추장이었던 아버지 환웅의 뒤를 이어 단군이 추장으로 되었다. 새로 추장이 된 단군은 원시적인 정치기구를 특권층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환시키고 권력기구를 조직하였으며 마침내 B. C. 30세기초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강동일대의 지명들인 단군이 무술훈련을 하였다는 《홍피》나 《림경대》, 《쌍계봉》 등과 구월산, 묘향산일대의 단군관계전설들과 지명들은 우리 나라의 첫 국가를 세웠던 단군의 행적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해준다.

특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애국애족정책에 의하여 강동에 훌륭히 개건된 단군릉은 반만년력사에 남긴 단군의 업적에 대해서도 길이 전해주고있다.

구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새해를 축하하고 새해에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하여 《덕담》을 주고받았다.

설을 맞으면서 설장식도 하였다.

다음으로 설명절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은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먹었다.

떡국은 우리 나라 설명절음식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음식이다.

떡국은 흰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팔팔 끓는 장국에 넣고 끓이다가 닭고기나 꿩고기볶은것을 넣고 후추가루를 뿌린것이다.

نال가루를 반죽하여 동글납작하게 얇게 밀어서 소를 넣고 송편모양으로 빚어 끓는물에 익힌 편수국도 설명식의 하나였다.

설날에 찰떡, 설기떡(시루떡), 흰떡을 흔히 만들어먹었는데 평양지방에서는 떡과 함께 녹두지짐과 노치를 만들어 먹으며 설명절을 즐기었다. 노치는 평양의 소문난 지짐의 하

이다. 노치는 찰쌀가루나 찰기장, 찰수수 등의 가루를 익반죽하고 길금가루를 두어 삭혀서 기름에 지진것이다.

우리 나라의 설음식에서 이채를 띠는것의 하나는 고기구이인데 그가운데서도 소고기와 꿩고기구이가 예로부터 유명하였다. 소고기구이는 소고기를 갖가지 양념에 재웠다가 불우에 적외를 올려놓고 구운것인데 이러한 조리법은 우리 나라에 고유한것이다.

또한 설명절음식으로서 강정과 약과, 수정과를 만들어먹었다. 강정은 설날의 으뜸가는 당과였으며 귀한 손님을 대접할때나 제사를 차릴 때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었다.

설날에 과일을 맛보는것도 새해의 운치를 돋구는것으로 여겨왔다. 설날에 주로 먹은 과일은 밤, 대추, 사과, 호두, 잣 등이다.

설에 마시는 술로는 도소주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오는 육계, 산초, 삼주뿌리, 도라지, 방풍 등 여러가지 고려약재를 넣어서 만든 술)를 으뜸으로 여겼다.

설날에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준비하여 설음식상을 푸짐히 하였으며 가족, 친척들이 모여앉아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며 즐겁게 식사하였다.

다음으로 설명절에는 여러가지의 민속놀이를 진행하면서 즐기었다.

설날을 상징하는 대중적인 민속놀이들가운데는 윷놀이, 장기놀이, 널뛰기, 연띠우기,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등이 있다.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민족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박사 계승무

고조선의 력사는 전조선, 후조선, 만조선시기로 구분된다.

— 전조선

전조선은 고조선(B. C. 30세기초—B. C. 108년)의 첫 왕조였다.

전조선은 건국초기부터 비교적 정연한 통치체제를 갖추고있었다.

전조선은 공고한 세습적군주제를 유지하였다.

왕밀에는 전조선초기에 호가, 마가, 우가, 응가, 학가, 구가를 비롯한 대신급 관료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소수 특권귀족들인 《가》들이 임금의 통치를 보좌하고 저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귀족민주주의적합의기구인 《제가평의회》도 있었다.

이러한 중앙통치기구와 함께 기본수도인 평양외에 아사달이나 장당경과 같이 부수도를 두는 제도나 직할지외에 후왕들이 다스리는 후국들을 두는 부수도제도와 같은 지방통치제도도 갖추어져있었다.

전조선에서는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순장무덤을 통하여 볼수 있듯이 초기부터 노예소유자적경제제도가 존재하였으며 성립이전의 청동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비파형단검과 창을 비롯하여 무기, 농기구, 공구, 생활용구들을 당시로서 귀한 금속인 청동으로 제작하고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등 생산력이 크게 장성하였다.

이런 강한 국력에 기초하여 건국초기에 서북조선일대에 국한되어있던 전조선의 령역은 B. C. 3 000년기 후반기이후에는 조선반도 전지역과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 연해변강 남부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조선은 당시 다른 지역들이 원시문화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을 때 발전된 고대문화를 남먼저 꽃피우고 후세 우리 민족의 여러 국가들에 커다란 정치, 경제, 문화적영향을 주었다.

근 1 500년간 동방의 문명국으로 이름떨치던 전조선은 B. C.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후국으로 있던 부여, 구려, 진국 등과 여러 속령들의 분립적경향으로 종말을 고하고 후조선이 서게 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실장 박사 권승안



1장 1경 《광한루의 봄바람》중에서

교예극 《춘향전》

국립교예단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교예극 《춘향전》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민족고전소설 《춘향전》을 각색한 교예극 《춘향전》은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교예극은 최근에 개척되고 있는 새로운 교예예술형식이라고 말할수 있다.

교예극은 재주동작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1장 2경 《부용당의 달밤》중에서



작품에 반영된 생활내용을 무대우에 펼쳐보이는 교예의 한 형태이다.

교예극 《춘향전》은 지상교예뿐만아니라 공중교예, 수중교예, 빙상교예 등 모든 체력교예종목들과 함께 희극교예, 요술까지 다 결합된 종합적인 교예극이다.

교예단에서는 무대장치와 조명을 혁신하고 높은 기량을 요구하는 그네와 널뛰기, 줄타기, 물우에서 중심잡기를 비롯한 종목들과 관중들을 신비경에로 이끌어가는 요술 등을 배합하여 교예극 《춘향전》의 내용을 잘 살리었다.

또한 교예극의 근본성격에 맞게 교예의 모든 요소들을 조화롭게 일치시켜 춘향과 몽룡사이의 사랑관계를 형상함으로써 봉건적신분제도의 반동성과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윤리도덕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고있다.

교예극 《춘향전》은 사람들에게 웃음도 주고 눈물짓게도 하며 손에 땀을 쥐게도 한다.

교예극 《춘향전》은 관람자들의 절찬속에 평양교예극장에서 공연되고있다.



5장
《상봉》중에서



1장 2경 춘향을 찾아가는 리도령

3장 1경 《변학도》중에서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3장 1경 철창속에서 춘향의 꿈장면

3장 2경
《분노》
중에서





만수대창작사에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은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개천절행사에 참가



역사적인 10. 4선언발표 5돐 기념토론회



고국방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방문단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국가선물관을 돌아보고

모란봉에서의 휴식의 한때



만경대고향집을 방문



서해바다가에서

하나음악정보센터 참관

릉라곱등어관에서 교예관람





민족의 향기

설명절음식 떡국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설날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설명절음식을 만들어먹곤 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많은 설명절음식을 준비하는데서도 떡국준비에 제일 많은 품을 들인답니다.

떡국은 말그대로 흰가래떡을 얇게 썰어서 고기국물에 넣어끓인 국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설명절이 되면 떡국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 가정들에서는 세배하러오는 사람들이나 손님이 찾아오면 떡국을 끓여 대접하는것을례의로 여겼습니다.

떡국을 《침세병》이라고도 하였는데 그것은 해마다 설날이면 한그릇씩



먹는 관습으로부터 나이도 한살씩 늘어난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리왔습니다.

떡국은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을뿐아니라 소화흡수도 잘 되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이 즐겨찾는 설명절음식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러면 떡국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음식감으로는 한그릇분일 때 흰쌀 153g, 꿩고기(또는 닭고기) 100g, 닭알 반알, 김 3g, 파 10g, 마늘 3g, 소금 2g, 간장 5g, 참깨 0. 5g, 참기름 2g, 맛내기 0. 3g, 후추가루 0. 5g을 준비합니다.

먼저 흰쌀을 깨끗이 씻어 일어서 찬물에 4~5시간 불군다음 물을 짜우고 말리웁니다.

이것을 보드랍게 분쇄하여 채로 쳐서 소금과 끓는 물을 두고 익반죽하여 일정한 크기로 반대기를 빚은다음 끓는 찜가마에 안쳐서 40분간 찌고 10분간 뜸을 들입니다.

그다음 찢 떡반대기를 기계에 넣고 직경 3cm되게 뽑은 떡국대를 두께 0. 3cm정도의 나무잎모양으로 썰어 얼구어놓습니다.

다음 꿩고기(또는 닭고기)를 깨끗이 손질하여 삶아 굵직굵직하게 찢어놓습니다. 뼈로는 국물을 만듭니다.

파는 5cm로 엇썰고 마늘은 다칩니다.

김은 참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서 부스르뜨립니다.

닭알은 그릇에 까넣고 물과 소금을 약간 두고 휘저어 달아오른 지집판에 지지 가늘게 썩니다.

이렇게 떡국을 끓일 준비가 되면 얼구어놓았던 떡국대를 슬쩍 물에 헹구어 끓는 고기국물에 넣고 2분간 끓입니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이면 떡이 풀어져 쫄깃쫄깃한 떡국의 고유한 맛을 잃을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것이 떡국을 맛있게 끓이는 비결의 하나랍니다.

떡이 동동 떠오르면 그릇에 담고 그우에 삶은 꿩고기(닭고기)를 넣고 실닭알을 엷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파, 마늘, 김, 참깨, 후추가루를 뿌리면 떡국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떡국에는 흰떡을 누에고치모양으로 썰어 고기국에 끓인 다음 고기구미와 실닭알을 엷어 내는 조랭이떡국, 흰쌀가루를 익반죽하여 납작하게 빚어 조개를 삶은 국물에 넣어 끓인 생떡국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해외동포 여러분이 다가올 설명절날에 쫄깃쫄깃하고 향기로우며 후더분한 맛을 주는 설명절음식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리광훈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으로 조선반도에서 반통일세력의 전쟁책동을 막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북남관계는 민족의 이터한 지향과 배치되게 대결상태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여전히 전쟁의 구름이 떠돌고있다.

최악의 파국상태에 처한 북남관계를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6. 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데 있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대한 립장은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전쟁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가르는 기준으로 된다.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반세기이상 지속된 분렬력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상봉하여 채택한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북남공동선언들은 발표되자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환영을 받았다.

북남공동선언들에 의해 반목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조국땅에 화해의 봄이 오고 끊어진 지맥이 하나로 이어지는 감격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6. 15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총리 회담과 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많은 대화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대화와 접촉들을 통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가시고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었다.

6. 15시대에는 온 겨레를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6. 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속에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정의 분위기가 깃들고 평화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북과 남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

언을 존중하면서 그 리행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6. 15통일시대의 현실은 북남 선언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북남관계가 발전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을 실증 해주었다.

그러하던 북남관계는 남조선에서 리명박보수패당이 집권하면서 악화과 대결의 길로 내달리기 시작하였다. 리명박패당은 북남공동 선언들을 백지화하고 그의 기본 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부정

하였으며 6. 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남공동선언들에 명시된 내용들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6. 15시대에 이룩된 성과들을 모조리 파괴해버렸다. 이로 하여 북남관계는 전면 차단되었으며 대결은 격화되게 되었다.

리명박패당에게는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이 안중에도 없었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공화국과 대결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할 흥제만이 짝 차있었다. 하기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도

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하고 나중에는 류례없는 정치테로행위까지 기도하며 북남관계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몰아간것이다. 그들의 속심은 외세와 야합하여 6. 15통일시대를 뒤집어엎고 북침전쟁도발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는데 있었다.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는 리명박패당의 책동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길이 막혔으며 조선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현실은 북남공동 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면 북남관계가 발전하고 평화가 오지만 반대로 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면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밖에 일어날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남사이에 존재하는 대결관계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우리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것이다.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본사기자



자루속의 송곳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곁을 가려도 속이 드러나고야마는 부정적인것을 일러 자루속의 송곳으로 일러왔다. 지금 보다 명백히 드러나는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몇달전 미국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국들과 미싸일방위체계를 운용하는 이유는 《북조선의 미싸일위협》에 대한 우려때문이며 《방어》적성격을 띤것이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저들의 무력증강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과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도이칠란드, 벨가리아 등 많은 나라들의 대중보도수단들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싸일방위체계확대는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지역대국들을 겨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내 출판물들도 그것을 인정하였다.

지난해 9월 외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일본 《자위대》통합막료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싸일방위체계를 확대하는 문제를 일본과 토의중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일본에 또 한개의 조기경보레이다를 배비할데 대해 논의하였다고 떠들었다. 앞서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현재 탄도미싸일추적을 위해 고성능레이다기지를 두곳에 더 건설하고 일본 오키나와주둔 미해병대를 단기적으로 증강배치하려 한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이것이 중국군에 대응하기 위한것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지지통신역시 같은 예평을 하였다.

놓고보면 일본에 전개하는 조기경보레이다체계는 우리 나라뿐만아니라 중국까지 시야에 넣을 수 있는것이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추진해오던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에 대한 포위환형성을 완성하려 하고있다.

실전배비단계에 들어선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나날이 증대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유럽의 넓은 지역에도 강력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튀르끼예와 이스라엘에도 미국의 미싸일들이 전개되고있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계획은 동북아시아와 중동, 유럽에 이르는 전세계적인 범위를 포괄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전지구적인 미싸일공격망을 형성하여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손쉽게 실현하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이루기 위한것이다.

현시기 미국은 경쟁대상국들은 물론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군사적공격을 가하는데서 가장 실용적인 수단의 하나를 미싸일방위체계로 보고있다. 강력한 이 체계를 구축하면 공중과 해상, 지상 등 각이한 방향과 거리에서 타격효과를 높일수 있어 전쟁과정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힘에 의한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용이하게 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결국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강력한 미싸일공격망형성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심각한 경제침체와 금융위기로 허덕이면서도 막대한 자금을 들이밀며 동아시아미싸일방위체계를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완성하는데 주력하고있는것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우리의 《미싸일공격》에 의한 자국《방위》와 동맹국《보호》를 위한것으로 묘사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성격과 위협성을 은폐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난시기 군사전략적요충지를 가로타고있으면서 자주적으로 나아가는 나라들을 한사코 반대하며 공격의 선차적대상으로 삼아온 미국이다.

미국에 의한 미싸일위협조성은 오늘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있으며 나라들사이의 불화와 군사적대립을 조장격화시키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여러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을 파괴하는 주범이며 새로운 군비경쟁, 미싸일경쟁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다.

미국이 그 어떤 외피를 쓴대도 흥심은 가리우지 못한다.

계선을 넘어서는 령토강탈책동

일본이 지난해 남조선집권자의 독도시찰을 계기로 저들의 본심을 드러내었다.

그들은 큰일이나 난듯이 정부급교류 중단, 서울주재 자국대사 소환, 《야스구니진야》참배, 《대북공조》중단 등 일련의 《강경카드》들을 연이어 꺼내들었는가 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한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까지 일구었다. 지난시기와는 달리 이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전면에서 나서서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있다.

수상의 지령에 따라 일본 외무성이 기자회견을 벌여놓고 독도가 저들의것이라고 하였으며 일본외상은 미국의 뉴욕에서 진행된 회담시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이며 령유권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수상관저에서 외상과 국가전략담당장 등 정부의 모든 부, 성 담당자들이 국제공보전략회의라는것을 열고 독도에 관한 해외공보전략을 새 중요과제로 규정하고 앞으로 대책을 강화할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독도가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공보용동영상자료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내돌리기로 결정하였고 중앙과 지방의 약 70개 신문들에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는 광고도 냈다.

이것은 그들의 령토강탈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지경에 들어섰는가 하는것을 잘 시사해주고있다.

지난시기에 일본이 도처에서 남의 령토를 제것이라고 우겨대며 소란을 피워온것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독도문제와 관련한 그들의 움직임은 실로 더무니없는것이다.

독도를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것은 다름아닌 조선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512년에 신라령토에 편입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독도에서 자기들

의 생업활동을 벌리면서 그 땅을 아끼고 사랑하며 관리해왔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는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독도령유권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지난시기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지도를 봐도 독도가 조선령역안에 포함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1877년에 일본 룩군성 참모국이 제작한 《대일본전도》와 1899년 일본 룩지측량부가 만든 지도의 구역일람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편찬한 《조선동해안도》, 일본수로국이 편찬한 《조선수로지》를 비롯하여 1905년까지 나온 일본지도에도 독도는 일본령역이 아니라 조선령역안에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독도가 조선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이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이미 명백하고도 충분히 확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무작정 제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을 보고 사람들이 아연해 질수밖에 없는것이다.

우리의 독도령유권에 대해 그 어떤 의문의 여지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본은 왜 자꾸 독도《령유권》주장을 내돌리고있는가.

그것도 독도문제를 민간에서 논의되던 어제날과 달리 정부급에서, 또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시키려 하는것은 일본이 국내에 군국주의열풍을 불어넣고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 보자는데 있다.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 남의 땅을 제땅이라고 우기며 빼앗으려는 일본의 추태는 통할수 없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땅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유적

대흥산성 북문

대흥산성 북문은 개성시 박연리에 있다.

고려시기 수도였던 개성을 방위할 목적으로 대흥산성을 쌓고 동, 서, 남, 북에 큰 성문을 세웠다.

산성의 북쪽에 있던 문은 현재까지 축대와 문루가 그대로 남아있다.

굵직굵직한 돌로 쌓은 축대의 북판에는 높이와 너비가 3.7m, 길이가 5.5m인 무지개문길을 냈다. 여기에는 옛날 큰 문짝을 세웠던 문확구멍과 그것을 멈춰세우던 멈춤돌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북문의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이며 합각지붕을 이고 모루단청으로 장식되



여있다. 이 문루는 명승인 박연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고모담옆의 범사정과 함께 박연의 자연풍치를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대흥산성의 북문은 고려사람들의 높은 축조기술과 나라를 지키려는 열렬한 애국심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널리 이용되고있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